

원익인

WINTER 2021 WONIK MAGAZINE Vol. 62

원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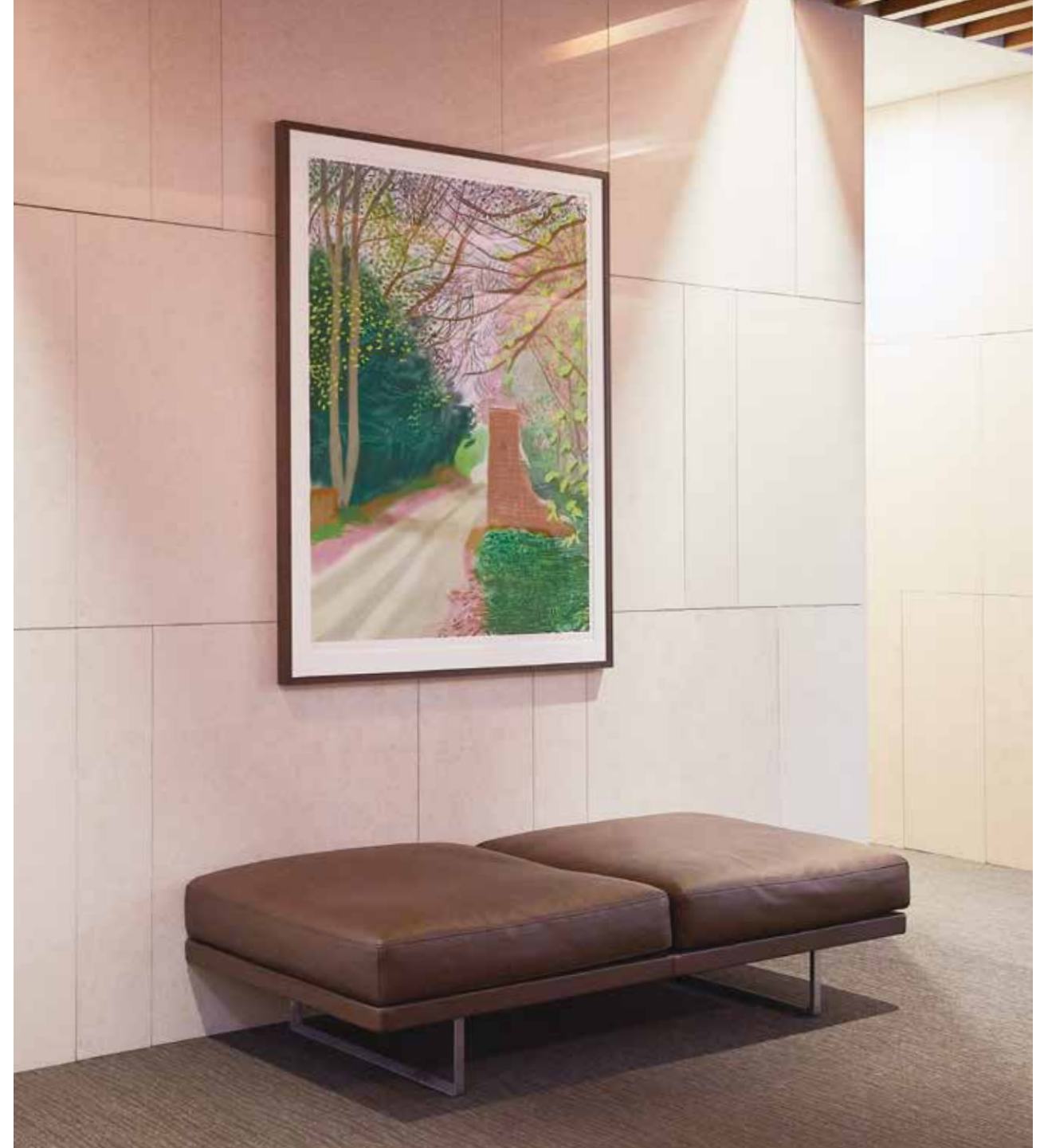
WINTER 2021
WONIK MAGAZINE
Vol. 62

소통 - 한 방향 서로 함께하라

The 10th Gallery
명작예찬

그것이 내가 보는 방식

예술에 대한 실험과 열정, 다양한 작업 스타일로 유명한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판교 사옥 9층에서 감상해보자.



데이비드 호크니

1937년 영국에서 출생한 데이비드 호크니. 그는 명실공히 현존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예술가 중 한 명이다. 1960년대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한 후 다양한 작품을 완성하며 대중적 명성을 얻기 시작했는데, 초상, 정물, 풍경은 물론이고 추상과 구상의 요소 등을 하나의 화폭에 그야말로 자유자재로 담아내며 주목받았다. 그는 자신이 본 상관을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고스란히 화폭에 담아내는 작업에 천착했으며, <그것이 내가 보는 방식(That's the way I see it)>이라는 저서를 발견하며 이론가로서의 면모도 확고히 했다.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

데이비드 호크니는 넓은 스펙트럼을 견지하는데, 에칭, 석판화, 유화, 수채화, 프린팅, 사진, 컴퓨터 등을 사용하며 작품을 완성한다.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East Yorkshire in 2011’은 아이패드로 작업한 작품이며, 25개의 에디션이 있다. 약 70세의 나이에 낫선 기기를 이용해 작품을 완성한 것이며, 그의 작품에 대한 실험 정신과 열정을 반증한다. 작품은 자연에 대한 느낌을 유려히 풀어냈으며, 마치 숲속을 거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잘 훈련된 손, 사물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각, 그리고 이를 지치지 않고 만들어 나가는 열정, 이 세 가지가 화가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판교 사옥 9층,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보며 우리가 현재 바라보고, 느끼는 세상은 어떠한 것인지 잠시 생각에 빠져도 좋겠다.

회장님 신년사
모두의 노력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어떠한 변화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신년 메시지
2021 HAPPY NEW YEAR

ONE WONIK

원익월드
김영민 과장 원익큐브 건재 실리콘사업부 실리콘 영업팀

WONIK HERO 2021
기술개발상 최우수 원익아이피에스
혁신상 우수 원익머트리얼즈

Better Tech #1
D램 다음 메모리 반도체는 F램?

공감라운지
영화<러빙 빈센트>, 김규아 과장 원익로보틱스 개발팀

그웨잇팀
원익큐엔씨 코팅사업팀

06

08

12

16

24

28

32

36

40

44

48

52

54

58

Boss vs. Leader

신형주 상무 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플라즈마설계팀

명단공개

열일곱 번째 원익인명사전, 박범기 원익머트리얼즈 안전환경팀
열여덟 번째 원익인명사전, 이수환 원익머트리얼즈 생산 3팀

Great Global Company

소통, 존슨앤존슨에게 배우다!

멘토링

이현준 팀장·노윤영 과장 원익홀딩스 기술연구소 연구 1팀

슬기로운 직장생활

나의 소통 능력은?

Better Tech #2

데이터댐과 데이터 라벨링

Trend

배달의 기술

ONE WAY

62

원익은 지금

원익큐엔씨 [한끼줍쇼 시상식]

공채 7기 입문 교육

원익 카페에 차 마시러 오세요!

원익홀딩스 신규 사옥 준공

78

행복일터

소통,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80

NEWS FOCUS

뉴스 및 소식

91

Thanks for U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WINTER 2021 Vol. 62

소통 - 한 방향 서로 함께하라

사보기자단 - 원익홀딩스 소병오 원익아이피에스 차유리, 최예란 원익머트리얼즈 한정현 원익큐엔씨 이민희 원익 이기복 원익큐브 정은하 씨엠에스랩 박지현
원익로보틱스 서상원 원익엘앤디 박재진 하늘물빛정원 빈윤진 원익투자파트너스 최선목 / 사보담당자 서재원

발행일 2021년 3월(통권 제62호) 발행인 박영규 발행처 원익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상평동 612번지 기획 디자인 PEOPLE PAGE 02-6674-0111
사보 <원익인>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익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모두의 노력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어떠한 변화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원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영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작년 말 원익 가족이 되신 피앤이솔루션 임직원에게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멀리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모멘티브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 승진한 임직원, 원익인상 수상자, 그리고 역대 가장 많은 수가 입사한

공채 7기 여러분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경영 환경은 한 치 앞을 예견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경제 석학들이 제시한 2021 한국 경제의 키워드를

‘진퇴양난(進退兩難)’이라고 했듯이 상시화 된 불확실성과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경영 환경 하에서도,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 부문의 선진화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문화가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진 간, 조직 간 의사 결정이 공정한 원칙 아래 투명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의사 결정은 임직원의 지지와 합심을 이끌어내어 보다 강력한

동력을 얻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 내 수평적 의사 소통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직원 간의 수평적 소통을 통해 창의성이 발현되고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높은 생산성이 달성되며, 글로벌 기업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의 시선을

국내에만 두지 말고 글로벌적인 시야로 사업을 바라보고 기획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어학 교육에 참여하고,

해외 사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들은 세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부족한 점에 대한

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평가제도 개선, 시스템 구축/운영 등은 성과 관리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서 의미가 있었으며, 앞으로는 조직별, 개인별 성과 관리 프로세스의 운영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 및 조직 단위에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 중장기 목표 등이 임직원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의 역량에 따라 목표가 적절히 배분되고, 최종적으로 임직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측정을 통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차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공정한 성과 관리 및 보상의

과정을 통해서 고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셋째, 인재 발굴과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특히 4차산업으로 대표되는 지식 산업의 성장으로 글로벌 회사들은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도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의 영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의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각 부문의 리더들은 엔지니어의 발굴과 육성이 회사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자각하고, 책임감을 갖고 인재의 영입, 내부 인재의 육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언택트 환경 속에서 조직 내 효율적인 업무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현재도 극성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는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우리가 예전에 익숙지 않았던

여러 업무 방식의 변화를 강요했습니다. 과거보다 임직원이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원활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에도 이러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업무 소통 방식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화상회의, SNS, 원격근무 등을 통한 언택트 근무 환경에 익숙해져야 하며,

핵심 위주로 간결하고 명료한 업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이겨 내면서 성장과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미래의 어떤 경영 환경 변화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량과 열정, 의지를 믿습니다. 올해 임직원

모두가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닥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4일
원익 회장 이 용 한

李 容 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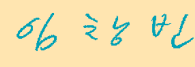
우리는 현재 ‘내실 강화’라는 단기 현안 과제와 ‘지속 성장’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선진화 시킴과 동시에, 연구개발 및 신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성숙한 문화 의식을 중심으로 2021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원익홀딩스 사업부문 대표이사 김채빈



2021년에는 소위 Next Normal의 미래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겪어 왔던 코로나19 발 미래 변혁을 정확히 예측하여 대비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어떠한 충격이 와도 이를 뚫고 성장할 수 있는 자강력, 즉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힘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과거 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크고 작은 여러 위기의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난세에서 영웅이 나오듯이 뛰어난 기업들은 경기침체가 이전보다 그 후의 회복시기에 더 높은 성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을 탄력적 고성과 기업(Resilient Outperformer)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였는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만의 방식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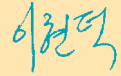
원익큐엔씨 대표이사 임창빈



2021 HAPPY

2021년 신축년, 희망차고 뜻깊은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이 Global No.1 달성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Global No.1 장비업체로 가기 위한 근원적 경쟁 우위 및 차별화 역량 확보에 주력하여 새로운 도약의 초석을 마련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이사 이현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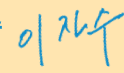
지난해 전 세계를 불안과 불운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매우 힘든 시간이었으나, 우리는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더불어 코로나 제로(zero) 사업장이라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아직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은 요원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원익머트리얼즈를 더욱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갑시다.

원익머트리얼즈 대표이사 한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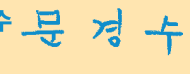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한 치 앞을 예견할 수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씨엠에스랩은 2020년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셀류전씨는 20여 년만에 새로운 BI를 선보였고 수이스킨은 클린 뷰티 브랜드로 브랜드 콘셉트 리빌딩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역시 불확실성 속에 경영 환경의 변화는 더욱 빠르게,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시도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패도 있겠지만 함께 지혜를 모아 계속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함께 헤쳐 나갑시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씨엠에스랩이 올바르게 단단한 회사로 성장할 것임을 믿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2021년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씨엠에스랩 대표이사 이진수



미래가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서로 합심하여 조직 역량에 대한 혁신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사의 주인임을 잊지 않고, 최고의 성과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더 높은 목표에 과감히 도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여유와 평화가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원익큐브 대표이사 문경수



작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팬데믹 위기 속에 우리가 준비해 온 로봇사회의 현실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2021년은 그동안의 성과와 우리 모두의 열정을 집중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비스로봇 회사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원익로보틱스 대표이사 장경석



2020년은 ‘영동 1등 리조트 건설’이라는 목표로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2021년은 영동 1등 리조트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에 걸맞는 색깔을 입히고 스토리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메이플비치를 새롭게 브랜딩합시다. 또한 구성원 모두가 행복매니저, 서비스매니저가 된다는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고, 구성원과 고객의 행복을 지향하는 원익의 가치경영을 더 심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원익엘앤디/하늘물빛정원 대표이사 이재천



NEW YEAR

2020년 역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목표 달성을 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중심의 상거래가 확대되고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 사고를 좀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Moonshot-thinking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창조적 思考에서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첨단기업들이 탄생하였습니다. 벤처산업은 5%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혁신산업입니다. 우리 원익투자파트너스는 이러한 시대 정신에 맞는 투자로, 100년 기업으로 나가는 발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원익가족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는 흰 소의 신성한 기운을 이어받아,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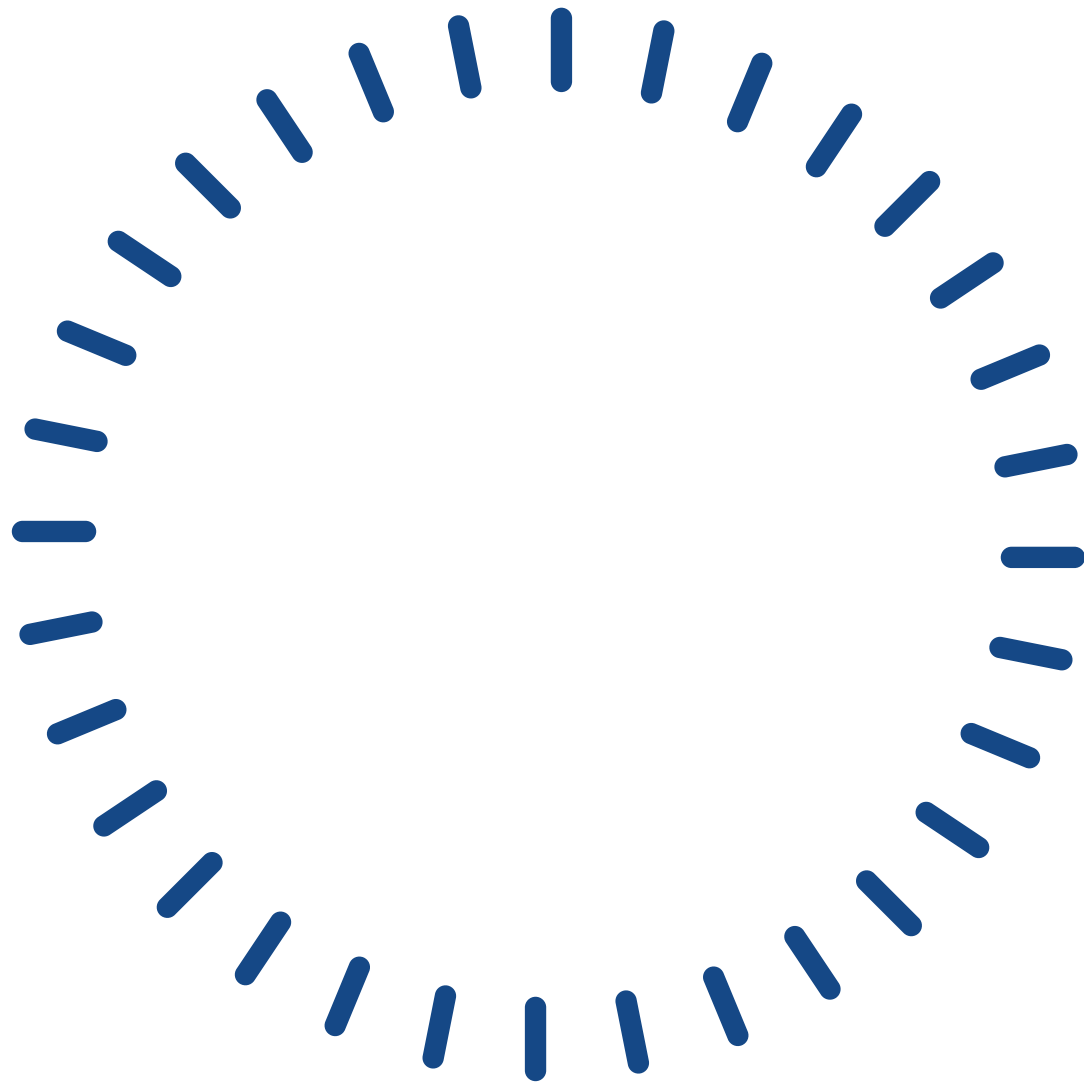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이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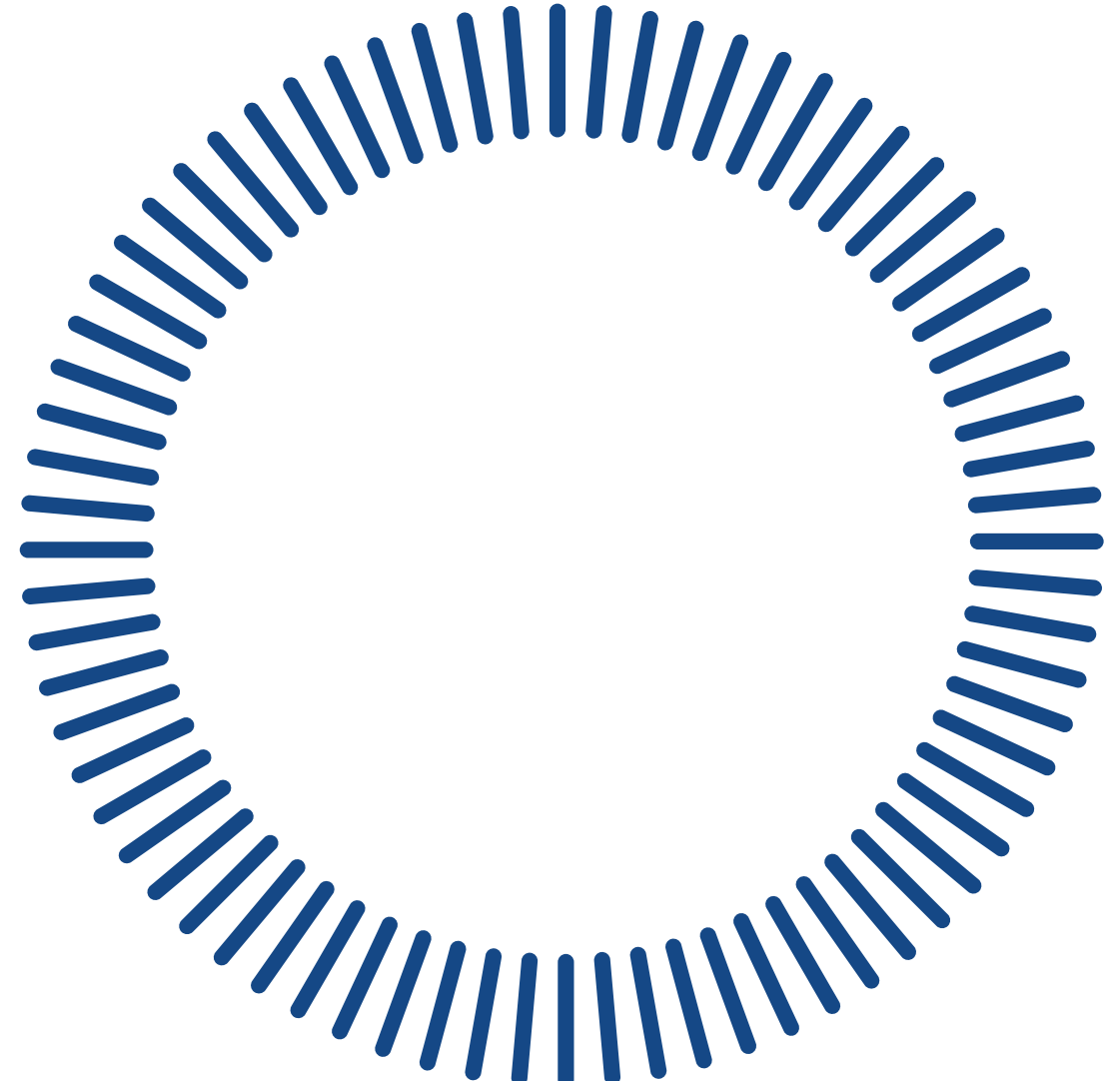
2021년 시장 환경은 더욱 험난할 것이며, 변동이 많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경영 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의지만 있다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원익 대표이사 장홍식





ONE WONIK



소통은 편견의 확인이라고도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은 열정적이며 즐겁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소통으로 하나되는 원익인은 혁신과 창의의 방향으로 나아가 또 다른 성공을 이어갈 것입니다. 2021년, 원익인의 열정적이며 즐거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익월드

글·사진 김영민 과장 원익큐브 건재 실리콘사업부 실리콘 영업팀

안녕하세요. 원익큐브 건재 실리콘사업부 실리콘
영업팀에 근무 중인 김영민 과장입니다.
저는 바르셀로나에서 아이슬란드까지 4C(Crazy, Change,
Challenge, Confidence)를 찾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들.
저의 여행기, 지금 시작합니다.

4C를 찾아서



가우디와 메시의 바르셀로나

여행의 시작은 가우디와 함께했습니다. 가우디의 건축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땅을 파고 나온 돌로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위상은 정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가우디 사망 100주년 추모 건축물을 자신들과 관광객의 헌금으로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우디 사랑, 정말 대단하죠? 바르셀로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FC바르셀로나입니다. 그 유명한 리오넬 메시는 '원맨클럽(자신이 속한 팀에서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것)'에 더 가까이 가고 있지요.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트로피를 보며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의 성과를 생각하며 바르셀로나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스카이 다이빙

두 번째 여행지는 스위스, 저는 이곳에서 도전을 하기로 했어요. 135m에서 번지 점프, 15,000피트에서 스카이 다이빙. 모두 제가 처음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떨렸는데, 저만 유일한 동양인이었고 순서마저 첫 번째였어요. 도전은 두려움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많이 두려웠지만 주위의 응원과 가이드 덕분에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취감이 대단했고, 정말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듯해요.

대영 박물관과 손흥민의 영국

스위스를 떠나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보고 싶었던 것이 많아 일정을 길게 잡았어요. 산업혁명 기록의 본거지이자 '박물관이 살아있다'로 유명해진 과학 박물관, 인류 진화와 지구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자연사 박물관, 세상의 모든 유적을 보유한 대영 박물관, 박물관 한쪽 조그맣게 전시된 한국의 모습은 낯선 유럽에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더군요. 뮤지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맘마미아'에 이어 '위키드'까지, 자리를 메운 관객 사이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말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 오르는군요. 한국 축구의 상징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경기 관람도 잊을 수 없어요. 그날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과 하나되어 열정적으로 응원했어요.

김영민 과장 원익큐브 건재 실리콘사업부 실리콘 영업팀 2018. 10. 16 - 11. 2

원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해외 배낭 여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년 30명을 선발하여,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 다양한 지역의 자유로운 여행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과 불의 도시 아이슬란드

마지막 여행지는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청춘에게 여행은 빈틈없는 계획이 아니라, 그 틈을 만나러 가는 것. TV를 통해 우연히 보았던 문구인데, 이 문구가 저를 아이슬란드로 이끌었어요. 아이슬란드는 남쪽의 '물의 도시', 북쪽의 '불의 도시'가 어우러진 큰 섬 나라입니다. 3박 4일의 시간이 아쉬울 만큼 감동적인 곳이더군요. 가는 곳마다 볼 수 있었던 폭포는 빙하가 녹으면서 생긴 것이라고 해요. 지구 온난화로 더 많은 빙하들이 녹고 있어, 자연을 위해서라도 지구와 소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류와 실수마저 즐기는 것

인생이라는 여행은 어쩌면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 다양한 오류와 실수를 즐기며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번지 점프할 때 용기를 준 미국인 친구, 마지막 날 저의 오로라 사진에 무척 흥분을 했던 일본인 친구,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즐길 수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게 정말 의미 있는 여행, 그 소중한 기회를 준 '원익큐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저와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

기술개발상 최우수

원익아이피에스

하나로 모든 시스템을 처리하다!

전진호 전무

3개 이상의 공정을 통합할 수 있는 Metal NOA System

안녕하세요, 원익아이피에스 Metal팀의 팀장 전진호 전무라고 합니다. Metal팀은 CVD-W, CVD-TiTiN, ALD-TiN,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번에 ‘차세대 Metal NOA System 개발을 통한 경쟁사 대체 및 신시장 창출 성공’으로 기술개발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Metal NOA System은 10년 전에 개발된 Bluetain System과 AKRA system의 기능을 합친 거예요. 하나의 Back born에 3개 이상의 공정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Ti/TiN, Tungsten, Clean step 등을 통합해 사용할 수 있어요. 설비 고도화 및 해외 업체 대비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했으며, 고객사에 2년간 장비 DEMO를 하면서 기존 원익아이피에스의 판매 공정 수정 및 공정 Step 확장과 신규 Device에 필요한 새로운 공정에 도전하여 성공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집약

Metal NOA System에는 CVD-W, CVD-TiTiN, ALD-TiN, 3가지 분야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CVD-W는 Fill Tank 고압 분사 기술을 이용해 Step Coverage 능력을 향상시켰어요. 원익아이피에스 고유의 Bottom-up Fill 공정을 이용해 Grain Size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했습니다. 알갱이가 커서 생기는 틈을 막아 저항을 낮춘 것이지요. CVD-TiTiN은 Dual Plasma 기술을 이용해 150% 이상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세계 최초로 Dual Plasma 및 TiCl4 Gas의 Delivery System을 혁신해 안정적이며 우수한 Step Coverage를 구현했습니다. 티클이 이동하는 라인에 지속적으로 열을 가해 상태 변화를 방지, 저항을 낮추었어요. ALD-TiN은 차세대 Ladefense MOC, M1C BM 등의 공정 능력을 경쟁사보다 높였습니다. 특히 원천 특허 기술인 N2 Pulse Purge를 공정에 접목해 경쟁사보다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아울러 탱크를 만들어 가스를 압축시켰다가 확 뿜는 방식으로 깊은 곳까지 코팅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효율적 소통과 배우려는 자세

저희는 내외부 소통과 배우려는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팀원들과 소규모 회의를 진행하며, 서로의 의견에 아이디어를 추가해 성과를 만들어 가고, 고객의 VOC를 귀담아 들으며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찾아 배우지 않으면 진행의 걸림돌이 되기에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엔지니어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표이사님의 슬로건이 Speed-up인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VOC를 빠르게 해결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저희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준비 중인 프로젝트도 성공시키겠습니다.

ALD Valve 및 Gas
분사 기술 확보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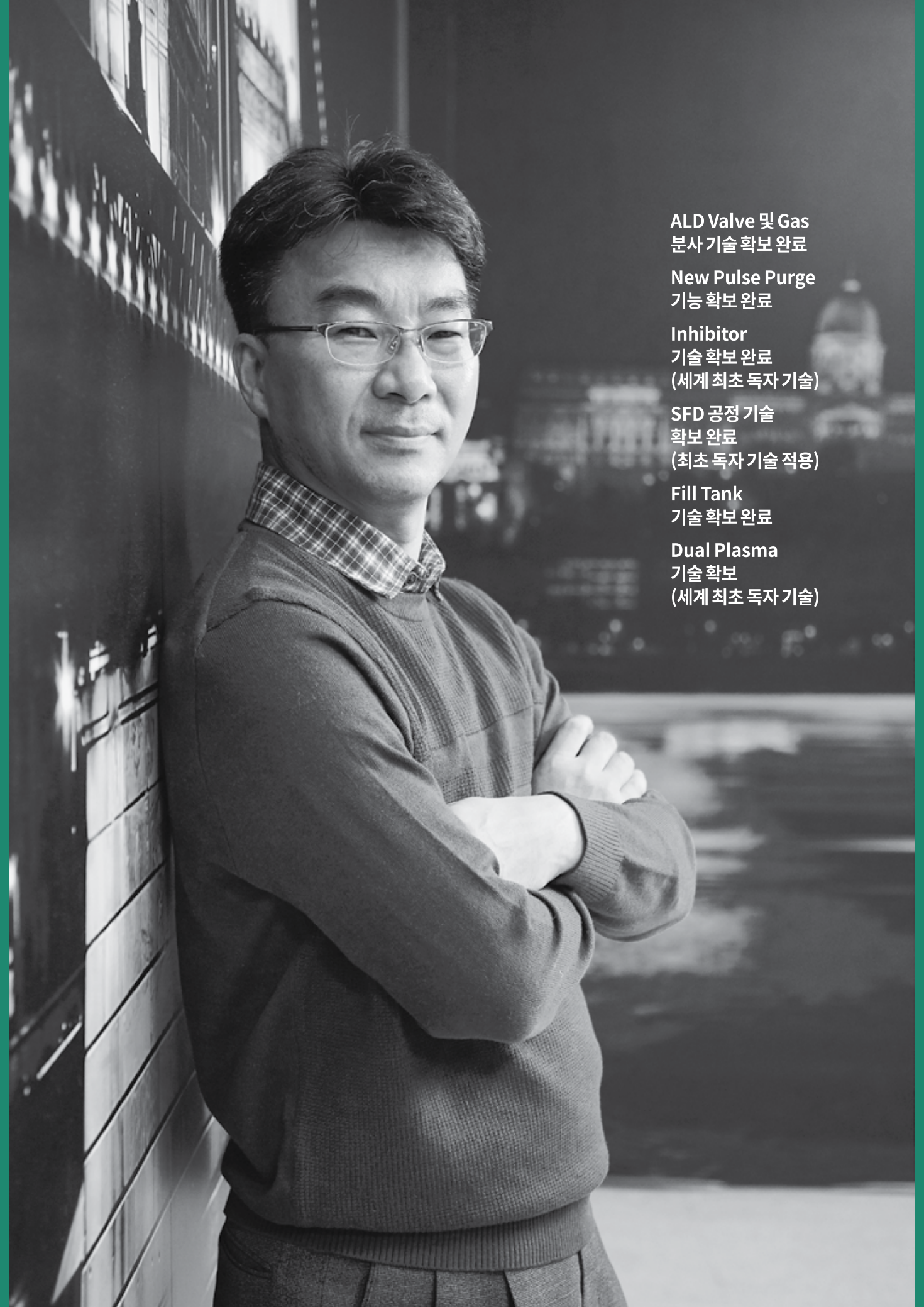
New Pulse Purge
기능 확보 완료

Inhibitor
기술 확보 완료
(세계 최초 독자 기술)

SFD 공정 기술
확보 완료
(최초 독자 기술 적용)

Fill Tank
기술 확보 완료

Dual Plasma
기술 확보
(세계 최초 독자 기술)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a man with glasses, wearing a dark sweater over a collared shirt, sitting in an office environment with a blurred background.

**기술개발을 위해
평소 노력하는 부분은?**

논문이나 특허를 조사하며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고객사에 제공한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을 넓혀가야 합니다.

홍상기 연구위원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a man with glasses, wearing a dark sweater over a collared shirt, sitting in a bright room with large windows and indoor plants in the back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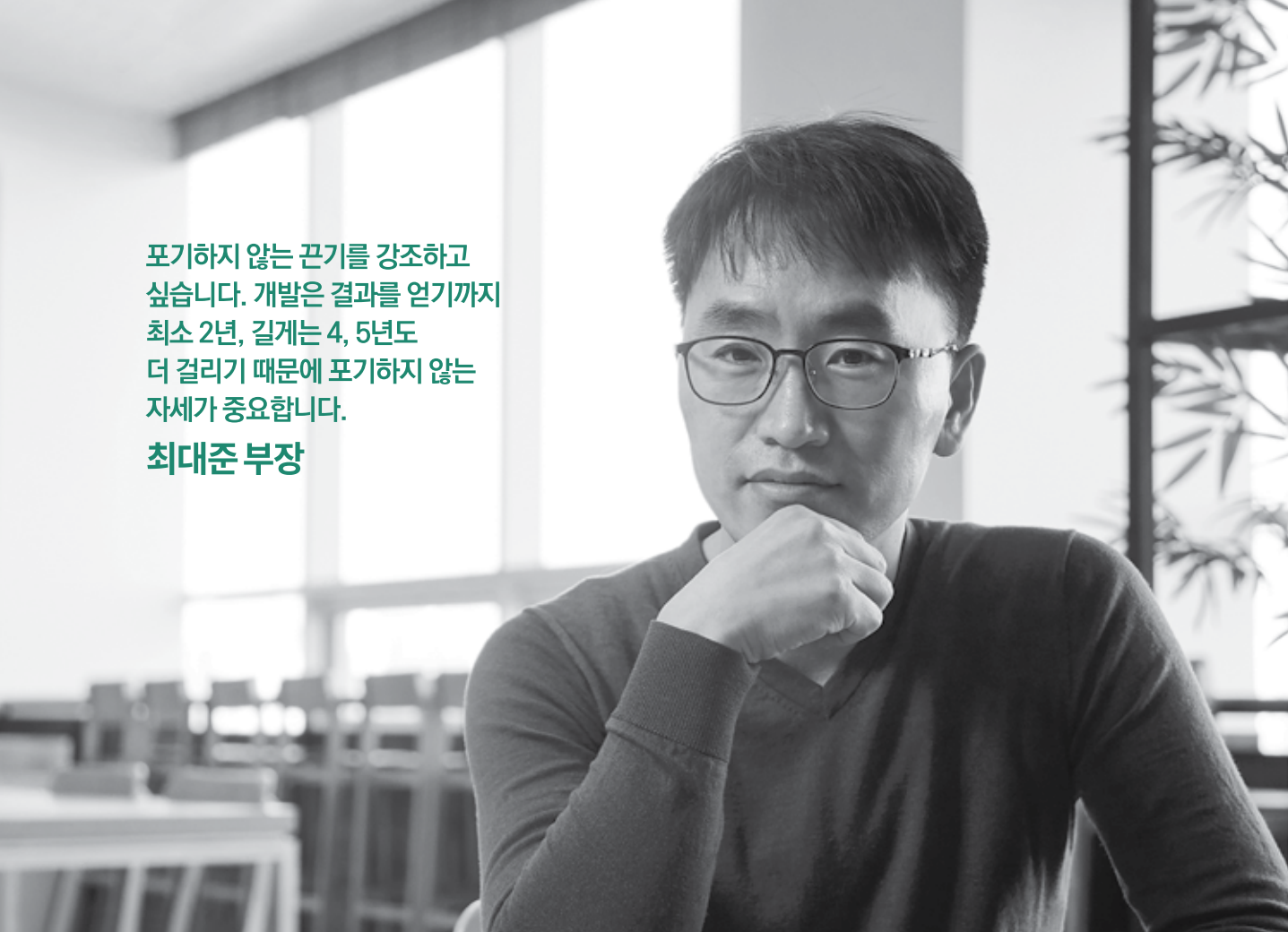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완벽한 공정도 더 어려운
디바이스가 탄생하면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박영훈 부장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a man with glasses, wearing a light-colored button-down shirt, sitting at a table with his hands clasped, smiling slightly.

다른 공정의 특허들과 공문까지
확인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 알고
있으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윤원준 부장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a man with glasses, wearing a dark sweater, sitting in a bright room with large windows and indoor plants in the background, resting his chin on his hand.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발은 결과를 얻기까지
최소 2년, 길게는 4, 5년도
더 걸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최대준 부장

혁신상 우수 원익머트리얼즈

제조관리시스템을 혁신하다!

송태호

2015년
윈도우 기반 태블릿 PC를 활용한
MES 바코드 스캔 기능 개발

2016년
MES 주요 KPI 지표 개발

2017년
가스용 MES 외
프리커서용 MES 구축

2018년
물류센터 위치별 재고관리
WMS 기능 적용

2019년
현장 MES 개선과제,
해외법인 MES 구축

2020년
주요 이력 관리 강화, MES 2.0 구축

2021년 이후
통합 이력 관리,
경영 모니터링 구축 예정

MES 2.0

반갑습니다. 2014년 입사해 지금은 정보전략팀에 근무하고 있는 송태호입니다. MES 및 내부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번에 '제조관리시스템(MES 2.0) 구축'으로 혁신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기존 MES는 2009년도에 구축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수정, 개발을 이어가며 그때그 때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개발과 기능 추가로 각 모듈별 연결고리가 약해지거나 개발툴 노후화로 최근 현업의 요구사항 트렌드를 반영해주기가 어려웠어요.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들이 많았고, 사용자 입장이나 개발 담당자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현업의 다양한 니즈와 편의사항을 반영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최신 UI로 전면 재개발과 개발 소스 체계 교체
MES 2.0은 정보표준화 및 신규플랫폼 개발로 다품

종 특수가스에 적합한 시스템이며, 타 시스템과 다르게 자체 구축하여 내부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로 최신 UI로 전면 재개발과 개발 소스 체계를 바꿨습니다. 중복되거나 미사용 중인 메뉴는 정리하고 통합하여 같은 화면에서 같은 데이터가 쌓이도록 하였고, 현업과 함께 기존 프로세스 개선 및 신규 프로세스를 적용했습니다. 바코드 발행 시 기존 바코드 프린터 노후로 대체품 구입 및 해외법인 적용 시 해당 모델 수급이 어려워 전 세계적으로 범용적인 Zebra 프린터로 일괄 교체했으며, 바코드 발행 소스도 전체 재 개발했습니다. 주요 이력은 별도로 관리, 백업하고 있었지만, 과거 이력을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하는 현재 상태 변경에 초점을 둔 개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항상 데이터 변경 시 기존 상태를 동일한 포맷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이력 관리 기능을 강화했고, 주요 유효성 체크(Validation) 기능은 모듈화하여 각 화면에서 원하는 부분에 동일한 로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팀워크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도출, 그리고 조화로운 팀워크야말로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진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테스트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가 MES 2.0이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시스템 리뉴얼을 팀원들과 함께해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관념과 형식을 깨고, 새로운 방법과 내용으로 MES를 다시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고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㉞

전문가가 생각하는 좋은 시스템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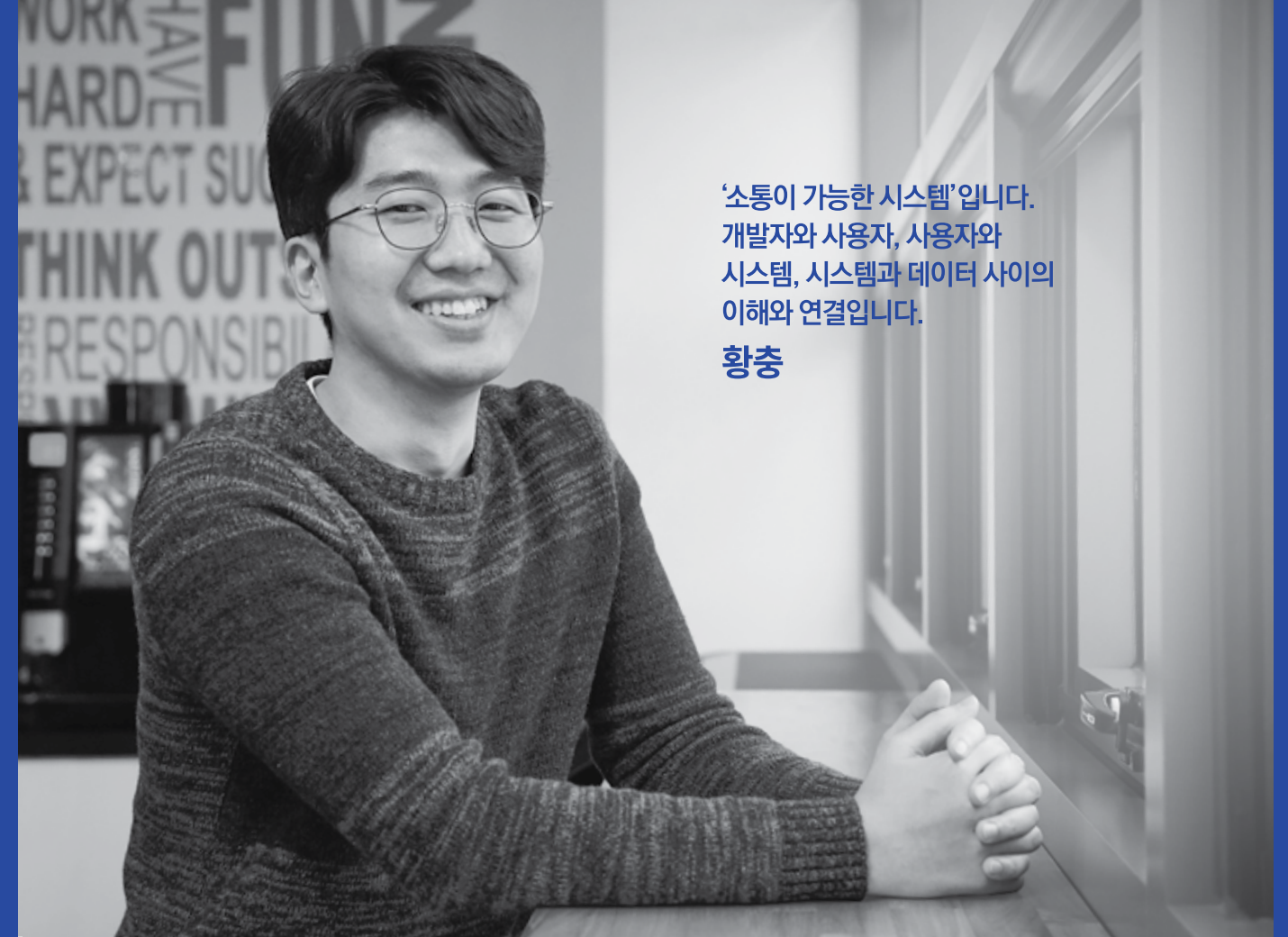
‘자유로운 시스템’입니다.
모든 유저가 자유롭게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입니다.
박종국



‘행복을 전하는 시스템’입니다.
나의 작은 수고가
시스템 사용자에게 큰 도움이
될 때 나의 행복입니다.
김무성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개발자와 사용자, 사용자와
시스템, 시스템과 데이터 사이의
이해와 연결입니다.
황충



메모리 반도체의 발전은
벽돌폰을 스마트폰으로 변신시킨
가장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휴대전화 변천사가 말해주는 메모리 반도체

국내에서 만든 최초의 휴대전화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에 맞춰 출시됐다. 한 손으로 들 수 없을 정도로 두껍고 무겁다는 이유로 ‘벽돌폰’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휴대전화는 불과 30여 년 만에 얇고 세련된 형태로 발전했다. 지금의 휴대전화가 과거에 비해 얇고 세련된 형태로 바뀔 수 있었던 까닭은 부품이나 설계, 그리고 소재와 관련된 기술이 모두 함께 발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의 발전은 벽돌폰을 스마트폰으로 변신시킨 가장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반도체 크기는 과거에 비해 대폭 작아졌지만, 기능은 오히려 대폭 확대됐다. 그 이유는 크기가 작아진 반면에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인 집적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휴대전화의 변천사를 떠올려 보면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발전해 왔는지 알 수 있다. 모든 디지털 기기에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D램 다음 메모리 반도체는 F램?

메모리 반도체는 진화하고 있다. 더 작고 더 강력해지며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이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변화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메모리 반도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로는 ‘D램(Dynamic Random Access Memory)’과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가 꼽힌다. 두 메모리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D램의 경우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방전되면 저장되어 있던 기록이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여서 끊임없이 전원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여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데다가 물리적인 충격에도 강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D램에 비해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은 플래시 메모리만이 갖고 있는 단점이다. 두 메모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도 있다. 바로 집적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D램의 경우 집적도를 높이기 어려운 이유로 1개의 트랜지스터(Transistor)와 1개의 캐패시터(Capacitor)로 구성되어 있는 단순한 구조가 지목되고 있다. 트랜지스터는 캐패시터의 입구를 여닫는 역할을 하고, 캐패시터는 전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캐패시터에 전하가 저장되어 있을 때는 ‘1’이라고 인식하고 없을 때는 ‘0’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캐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는 손실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하여 전하를 보충해 주어야만 한다. 이러한 동작을 리프레시(Refresh)라고 하는데 1초에 수십 번 정도의 횟수로 동작한다. 집적도를 높일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이같은 리프레시 동작에 있다. D램의 경우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리프레시 동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이런 동작들로 인해 반도체를 더 이상 작게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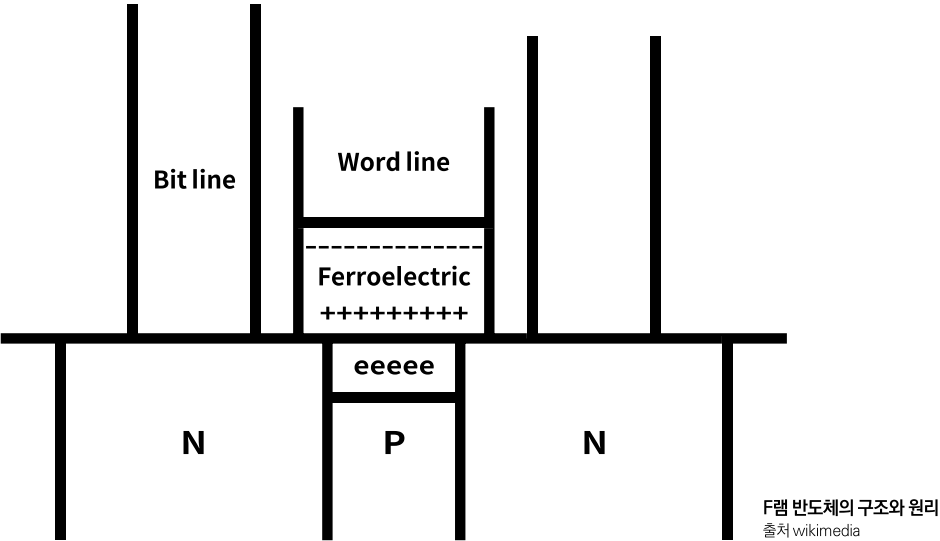
F램은 D램과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만 보유

F램(Ferroelectric Random Access Memory)은 D램과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만을 딴 차세대 메모리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데이터를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으면서,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F램이 이처럼 두 메모리의 장점만을 모아 새로운 개념의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은 ‘강유전성(Ferroelectric)’에 있다. 강유전성이란 외부에서 전기장이 가해지지 않아도 전기적 분극을 유지하는 자성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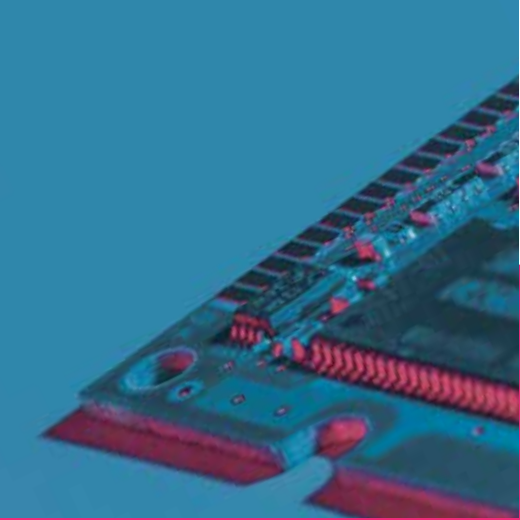
전기적 분극을 유지한다는 것은 극성을 바꿔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지털의 기본 구조인 ‘0’과 ‘1’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강유전체에 전기장을 가하면 내부가 양극과 음극으로 갈라지는데, 공급을 멈춰도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데이터를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비휘발성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플래시 메모리보다 빠르게 정보를 기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가 강유전체 메모리인 F램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10여 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여러 반도체업체들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하나로 F램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F램에 쓰이는 강유

전체 물질만 해도 무려 100여 종이 넘게 개발됐을 정도다.

그렇다면 어쩌서 아직까지 F램이 실용화되지 못한 것일까. 그 이유는 F램 개발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F램에 사용되는 강유전체 물질의 박막 두께를 얇게 만드는 과정에 있어 반도체 업체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반도체 기업들은 더 작은 메모리에 더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 박막 두께를 얇게 만들고 있다. 저장 용량을 늘리기 위해 하나의 메모리 칩 안에 들어가는 소자를 작게 만들어 최대한 많은 소자를 집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F램의 경우 분극이 일어나는 최소 단위인 ‘도메인(Domain)’이 수많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박막 두께를 줄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나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원자를 움직이면 수천 개의 원자가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고, 박막 두께가 수십 나노미터 이하로 좁아지게 되면 분극이 사라져 버려서 반도체의 기본 작동원리인 ‘0’과 ‘1’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보 저장 능력이 사라지는 ‘스케일(Scale)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플래시 메모리의 박막 두께는 10나노이지만 F램의 박막 두께는 이보다 2배 정도 큰 20나노 이상에 멈춰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F램의 상용화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대 기능집적형산화물복합구조연구단 연구진이 개발한 이 기술은 금속물질인 베릴륨과 티타늄에 산소를 화합하여 5나노 두께에서도 전기적 성질을 가지는 F램의 박막 두께를 만들 수 있다. 그동안 보편적으로 쓰여온 강유전체의 박막 두께가 약 100나노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박막 두께는 5나노까지 낮춘 것이라 상당한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업체는 이 기술이 실제로 반도체 개발에 적용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F램을 만드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㉞



김준래 과학칼럼니스트 공대출, 대기업과 벤처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현재 과학기술 전문 매체에서 객원기자로 활동 중. 이렇게만 느껴지는 과학기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일에 관심이 많음.



F램은 D램과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만을 딴 차세대 메모리로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데이터를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으며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영화 <러빙 빈센트 Loving Vincent>

프레임 한 장면 장면을 감상하고 싶은 작품

최초의 유화 애니메이션 <러빙 빈센트>. 이 황홀한 작품에 대한
임직원의 감상에 작품 정보를 더했다.

김규아 과장
원익로보틱스 개발팀

주인공의 일대기를 다루는 여느 전기 영화와는 다르게 이 영화는 빈센트 반 고흐의 사망 1년 후, 그의 죽음을 추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평소 그를 아꼈던 우편국 직원 롤랭은 그의 아들 아르망에게 빈센트의 동생 테오를 향한 마지막 편지 배달을 부탁하며 이 영화는 시작됩니다.

빈센트를 자신의 귀를 잘라버린 미치광이 그림쟁이 정도로 생각했던 아르망은 편지의 주인을 찾는 여정 속 점점 빈센트의 삶과 그의 예술을 향한 고집스러운 열정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재능을 가진 외로운 예술가를 죽게 만든 환경과 주변인에 답답함을 느끼는 아르망, 편지의 주인공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된 후에도 자살 혹은 타살이었을 빈센트의 쓸쓸한 마지막을 추적하게 됩니다. 빈센트의 천재성을 질투하여 작품을 모작한 사람, 진정으로 사랑했던 연인, 그의 유일한 지원군이었던 동생 등 다양한 주변 인물을 통해 빈센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끊임없는 정신질환과의 싸움, 스스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상황 등 어쩌면 그의 고난들이 천재 예술가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비록 사토닌 중독으로 황시증이 생겨 그림 전체가 노란 빛을 띄게 되었고, 살아생전 단 한 점의 작품만을 팔 수 있었던 비운의 화가. 역설적이게도 현재 그의 작품은 특유의 노란빛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유화 애니메이션이라는 타이틀 외에도 탄탄한 스토리와 함께 많은 여운을 남기는 영화입니다. 107명의 작가가 62,450개의 프레임을 직접 유화로 그리는 데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을 반영한 배경들이 러닝타임 내내 화면에서 쏟아지는 듯해, 마치 한 예술가의 삶을 그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빈센트는 물론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러빙 빈센트를 추천합니다.

작품 소개



러빙 빈센트

영화 러빙 빈센트 Loving Vincent / 2017 감독 도로타 코비엘라 & 휴 웰치맨 주연 더글러스 부스, 시얼샤 로넌



별이 빛나는 밤 The Starry Night



몽마르트르 언덕의 전망대 Belvedere Overlooking Montmartre



아를의 밤의 카페 The Night Cafe in Arles



자화상 Autoportrait



피아노에 앉은 가세외 딸 Marguerite Gachet at the Piano



농가 근처의 건조더미 Haystacks near a Farm

출처 네이버 영화

영혼의 편지

2017년 개봉한 <러빙 빈센트>는 폴란드 출신 감독 도로타 코비엘라와 영국 출신 감독 휴 웰치맨이 공동 연출한 작품으로 세계 최초의 유화 애니메이션이다. 미술을 전공한 후 영화학교에서 연출을 공부한 도로타 코비엘라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고민하다 반 고흐와 테오가 나눈 '영혼의 편지'를 읽고 영감을 얻었다. 일상적 소재에 자신의 삶을 담아냈던 반 고흐, 그의 방이나 가까운 지인들의 이야기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도로타 코비엘라는 2분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이를 본 애니메이션 감독인 휴 웰치맨이 장편 제작을 제안했다. 그렇게 <러빙 빈센트>는 탄생하게 되었다.

10년 동안

<러빙 빈센트>는 기획에서 개봉까지 10년이 걸린 작품이다. 두 감독은 고흐의 초상화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 아르망 룰랭을 주인공으로 한 스토리를 완성하고 실제 배우들을 기용해 14일 동안 영상으로 재현했다. 더불어 오디션을 통해 4,000명의 화가 중 107명을 선발했는데, 선발된 화가들은 프레임 하나하나를 정성껏 그림으로 옮겨야 했다. 107명의 화가들은 2년 동안 62,450점의 유화를 그렸으며, 모두 고흐의 작품 130여 점을 토대로 했다. 10년의 시간은 이토록 많은 이들의 열정과 정성으로 채워진 것이다. 10년의 시간은 두 감독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도 했다. <러빙 빈센트>를 제작하며 두 감독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도로타 코비엘라 감독은 작품을 제작하며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사를 21번이나 다녀야 했다. 휴 웰치맨 감독은 그녀의 곁을 지켰으며, 반 고흐의 그림을 앞에 두고 감동적인 프러포즈를 했다고 한다. 휴 웰치맨 감독은 처음에는 도로타와 사랑에 빠졌고, 그 이후에는 그녀의 프로젝트와 사랑에 빠졌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세계적 완성도

어렵게 완성된 유화 애니메이션 <러빙 빈센트>는 유수의 어워드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수상을 이어갔다. 애니메이션의 칸영화제라 불리는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관객상 수상, 제75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장편애니메이션 부문 노미네이트, 제30회 유러피안 필름 어워즈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다. 제20회 상하이국제영화제 금잔 애니메이션상 수상, 2017년 IMDB에서 '반드시 봐야만 하는 영화'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금의 삶을 강렬한 열정으로 채색하고 싶다면 <러빙 빈센트>를 추천한다. ㉞

우리가 하나라고 느꼈을 때는?



정훈 팀장
함께 해결책을 찾을 때,
당황스러운 일도 함께라면 언제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김민석 코팅생산 파트장
서로 챙겨줄 때, 직원이 상을 당했을 때
해남까지 내려가 격려를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전민광 코팅기술 파트장
남 탓하지 않을 때,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익큐엔씨 코팅사업팀
**소통으로 하나된
최우수팀의 저력**
원익큐엔씨의 새로운 가족이 된 코팅사업팀,
그들을 만나 소통과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병숙 팀원
함께 행복을 나눌 때,
작은 성공조차 함께 기뻐할 때,
행복의 크기는 더욱 커진답니다.

하나되어 움직이다

코팅사업팀은 2008년 세정전문업체 나노원의 코팅팀으로 시작했다. 주요 업무는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 설비 부품의 수명 연장을 위한 Re-coating 생산인데, 구체적으로 반도체 8대 공정 중 식각공정(Etching)에서 플라즈마 및 할로겐 가스에 노출되는 챔버 내부를 희토류산화물계의 분말을 녹여 코팅함으로써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P/C(파티클)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팀은 현재 정훈 팀장을 포함해 20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파트와 생산파트가 하나되어 움직인다. 기술파트는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생산을, 생산파트는 코팅, 후처리 등 공정을 담당한다. 작업 요청이 있을 시 구체적 요청 사항, 기술적 필요 사항, 예상 리스크 등을 꼼꼼히 파악 후 신속한 생산에 들어간다.

팀은 이러한 유기적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2020년 매출 30% 증가, PVD 코팅 식각 공정 최초 적용, E-APS 코팅 개발 및 양산 안정화를 이루었다. 아울러 세정업체 최초로 IPS나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와 맺는 JEP계약(공동평가)을 S사와 체결하였으며, 다양한 성과를 인정받아 원익 최우수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다.

수평 소통과 책임감

정훈 팀장은 팀의 차별화 역량으로 ‘수평 소통’과 ‘책임감’을 꼽았다. 팀은 수직 소통, 즉 탑다운 방식의 소통을 지양하며,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수평 소통을 지향한다. “직급이 오르면 말이 많아지고 지시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팀은 우선 많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직급을 떠나 누구든 좋은 솔루션을 내놓으면 바로 수용해요. 이러한 소통 문화를 바탕으로 팀원들의 유대도 좋아지고, 좋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효율적인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선,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한 책임 의식이 필수다. 팀원들은 좀 더 발전된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 자신의 분야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가학습 문화가 생겼고, 이를 통해 팀원들이 성장하는 결과를 얻었다.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율 성장을 이룬 것이다.

집중과 희열

성과를 위해선 고통과 희열이 따르기도 한다. 2019년, 신규 코팅 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았다. 팀원들은 2주 넘게 꼼짝도 못하고 테스트에 매달려야 했다. 전민광 파트장은 부산에 있는 딸을 보러 갈 계획이었으나, 그마저 포기하고 일에 집중했다. 딸에게 미안하다고 전하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팀원들은 하나되었고, 집중하고 또 집중했다. 간절함은 때론 기적을 부른다고 했던가. 일주일의 열정적인 시간이 흐르고 결과가 나왔는데, 성공이었다. 그때의 희열을 팀원들은 생생히 기억한다고 한다. 하나되어 고난을 극복했을 때의 성취감, 그것은 팀워크를 더 단단히 하는 촉매제가 된다.

좋은 사람들

팀은 업무적 성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팀원들의 소통과 결속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업무 때문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출근하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작년에 씨앗을 뿌렸으니, 올해엔 좋은 결과물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하나된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팀, 원익큐엔씨 코팅사업팀은 앞으로 원익의 성장에 커다란 힘을 보탬 것이다. ㉞

하나되어 고난을 극복했을 때의
성취감, 그것은 팀워크를 더 단단히
하는 촉매제가 된다.



신형주 상무

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플라즈마설계팀

SHIN HYUNG JOO

WONIK IPS

현재 상황에 안주하며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Boss**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Leader**

Leader



함께 갑시다!

명령보다는 공감, 혼자보다는 함께,
굿리더 신형주 상무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리더.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원익아이피에스에서 반도체연구소 플라즈마설계팀 팀장을 맡고 있는 신형주 상무입니다.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작년 5월에 원익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의 회사생활이 익숙치 않다 보니, 직원들과의 트러블 등 적응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었는데, 열려있는 원익의 문화 덕분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굿리더'로 선정되었어요.

영광입니다. 원익에 온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과연 제가 굿리더의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좋은 리더가 되라는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상무님이 생각하는 리더란 어떤 존재인가요?

'낯선 여행지의 가이드'가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란, 낯선 곳에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팀원들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이루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지요. 리더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팀원들의 입장을 생각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팀원을 이끌어 주실뿐 아니라 열정적이고 올버튼 분으로 본 받을 점이 많습니다.

금대섭 대리

팀원들과 소통을 잘하는 리더인 신형주 상무님은 수평적 리더의 표본인 것 같아요. 많이 배워서 나중에 신형주 상무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구동용 사원

그렇다면, 보스와 리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명령과 공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스는 명령을 통해 집단을 통제하고, 리더는 비전을 공유하며 집단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스는 신속한 실행을 가능케 하는 반면 팀원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에는 한계를 지녀요. 리더의 경우 실행 속도가 다소 느릴 수는 있지만, 팀원들과 한 마음,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에 시너지를 창출하게 되죠.

공감의 리더, 이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오픈 커뮤니케이션의 문화를 만들고자 해요. 직급을 떠나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소통 문화는 조직에 있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팀원들과 1:1 대화를 통해 용기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에 있을 때 제 멘토가 그러했듯 팀원들의 성장에 집중하고 있어요.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죠. 또한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끊임없이 공부해 팀원들에게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모든 팀원들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팀원들의 기술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리더로서 부딪혔던 순간은요?

언젠가 회식 중 한 팀원이 제게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데이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숨겨다가 용기를 내어서 말씀드렸는데, 질책 없이 잘했다. 문제점을 찾았으니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해서 힘을 낼 수 있었다고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 시선을 가진 리더가 되자고 생각했어요.

어떤 리더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로 기억되고 싶어요. 처음 리더가 되었을 때 팀원들에게 '이직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처우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컴퍼니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며 새로운 역사를 쓰자'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지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역경을 이겨낸 동반자로 남고 싶습니다.

팀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팀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국내 장비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팀을 성장시키기 위해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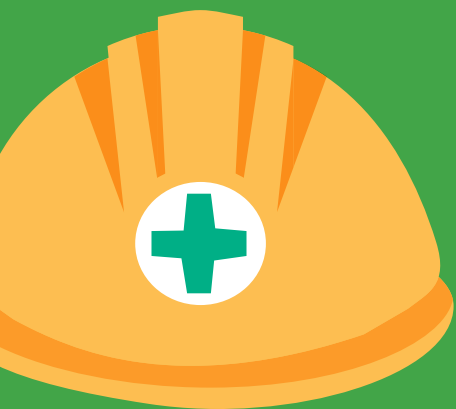
미국에 있을 때 제 멘토가 그러했듯 팀원들의 성장에 집중하고 있어요.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죠. 또한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끊임없이 공부해 팀원들에게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EMPATHY



명단공개

글 편집실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
안전환경팀 소속으로
원익머트리얼즈의 안전을 위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오징어볶음, 청국장,
곰창(순대).
수수한 입맛이에요.



좋아하는 스포츠는?
골프, 구력 6개월차의
골린이(골프어린이)입니다. ^^



휴일에 주로 뭐 하세요?
본가 방문해요(효자). 집안
일해요(사랑꾼), 운동해요(골프).



**자신과 팀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중대재해 & 중대산업사고
Zero'를 목표로 우리
안전환경팀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프로포즈 때 했던 말은?
통영 케이블카 안에서
프로포즈 할 때 했던.
"Would you marry me?"



안전을 위한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원익인명사전 * 박범기 원익머트리얼즈 안전환경팀

좋아하는 컬러는?

안전제일을 상징하는 녹색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은?

결혼 전엔 한지민, 결혼 후엔 박미선.

보물 1호는?

사랑하는 아내와 7살 아들, 5살 딸입니다.

첫사랑은 언제였나요?

지금의 아내입니다(나름 순정파). 2003년
7월 15일부터 사랑하게 되어 지금도
변함없어요.

눈이 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과 눈사람 만들기, 회사 제설 상황
확인(습관적)

하나되는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성을 넓히자는
생각으로 연령, 성별, 직급, 직무 등 개인
또는 업무적으로 서로 다른 패턴과 스타일을
인정하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직장에서 롤모델이 있나요?

안전환경실 김수엽님이에요. 자기계발을 위한
끊임없는 열정과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김수엽님을 본 받고 싶어요.

올해 업무적 목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지난 5년 간 정든
근무지를 떠나, 새로 발령 받은 근무지
적응 및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환경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꿈은?

어릴 적엔 체육 교사나 경찰이었어요. 지금은
평생 건강하게 일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체력과 건강관리, 직무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원익인에게 한마디?

원익인 여러분은 언제나 가장 안전한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항상 안전하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며, 위험에 대비하고 업무에 임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부주의에도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원익과 함께 성장하다 정년 퇴직할 겁니다!

열여덟 번째 원익인명사전 * 이수환 원익머트리얼즈 생산 3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

제품 제조(합성/정제/충전) 및 제조설비 운영 관리, 생산설비 수선 및 유지 관리, 공정관리와 품질관리, 그리고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컬러는?

초록색, 푸르고 평화로워요.

좋아하는 연예인은?

강호동을 좋아합니다. 2가지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어요, 전 이점을 높이 평가해요.

첫사랑은 언제였나요?

당연히 지금의 아내가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랍니다.

프로포즈 때 했던 말은?

커플 반지만 건네 줬어요. 지금도 아내는 날로 먹었다고 아들에게 말하곤 하죠. ^^

하나되는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내가 먼저 고쳐야 할 점을 찾아 바꾸려고 노력해요. 끈대 소리 듣지 않아요.

자신과 팀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초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 팀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목표 설정 PPT를 만들어 팀원들과 공유하거든요.

꿈은?

어릴 적엔 경찰, 지금은 원익과 함께 지속 성장하고 정년 퇴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계발(어학), 새로운 직무(신규 PJT)가 있으면 달려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노력 하고 있어요.

원익인에게 한마디?

원익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모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이 또한 종식될 것입니다. 항상 믿어주는 가족이 있으며,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며 또 큰 행복인지요. 힘들지만 모두 파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원익인을 응원합니다. @



좋아하는 스포츠는?

야구와 스쿼시, 활동적인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눈이 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설경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담아야겠죠.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 칼칼한 한국의 맛이 좋습니다.



자신의 보물 1호는?

울 아들! 3년간의 노력 끝에 얻었지요!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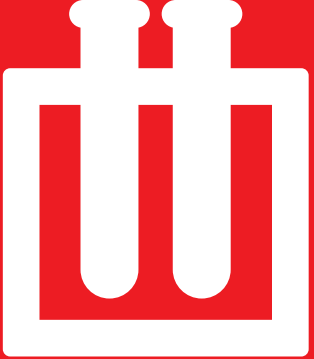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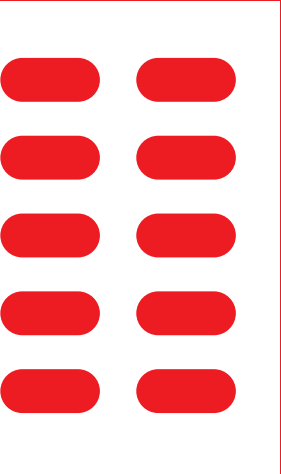
휴일에 주로 뭐 하세요?

코로나 전엔 여행을 주로 다녔어요. 지금은 방콕하며 영화감상이나 아들과 함께 게임을 합니다.

올해 업무적 목표는?

신규 PJT 안정된 양산 공급을 목표하고 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장의 안전 지킴이가 되려고 합니다.





**소통,
존슨앤존슨에게 배우다!**

세계적 헬스케어 기업인 존슨앤존슨의 5가지 소통 키워드.

Johnson & Johnson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은 1886년 존슨가 형제들에 의해 창립되었다. 처음엔 수술에 쓰이는 붕대를 제조하였는데, 이 사업이 크게 성공한 후 다양한 의약품 개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으며, 지금은 혁신적이고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을 제조하는 세계적인 기업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존슨앤존슨은 소비자 제품, 제약, 의료기기, 3가지 대표 사업 분야를 유지하며, 세계 60개국에 250여 개에 달하는 지사 및 자회사를 거느리고, 175개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진통제 타이레놀, 반창고 밴드에이드 등의 제품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영유아용품의 존슨즈 베이비 케어 제품군과 아큐브를 중심으로 한 콘택트렌즈 등의 비전 케어 제품군도 유명하다. 존슨앤존슨은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많은 특허를 보유했는데, 한 컨설팅 업체에서 전 세계 1,000여 개 기업 보유의 특허 정보를 분석한 결과 구글의 알파벳, 애플 등을 제치고 존슨앤존슨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미국 등 전 세계 주요국에 출원한 특허가 2019년말 기준, 총 1만 1,890건에 달한다.

COMMUNICATION

현재 존슨앤존슨에게는 미국과 유럽이 최대 시장이지만, 아시아, 특히 중국 및 신흥 시장을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 성장 전략은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화 도달 범위를 확장하며, 경영 우수성을 발휘해 최대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존슨앤존슨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M&A를 통한 사업 다각화와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차별화되며 안정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 제품을 선보이며, 기업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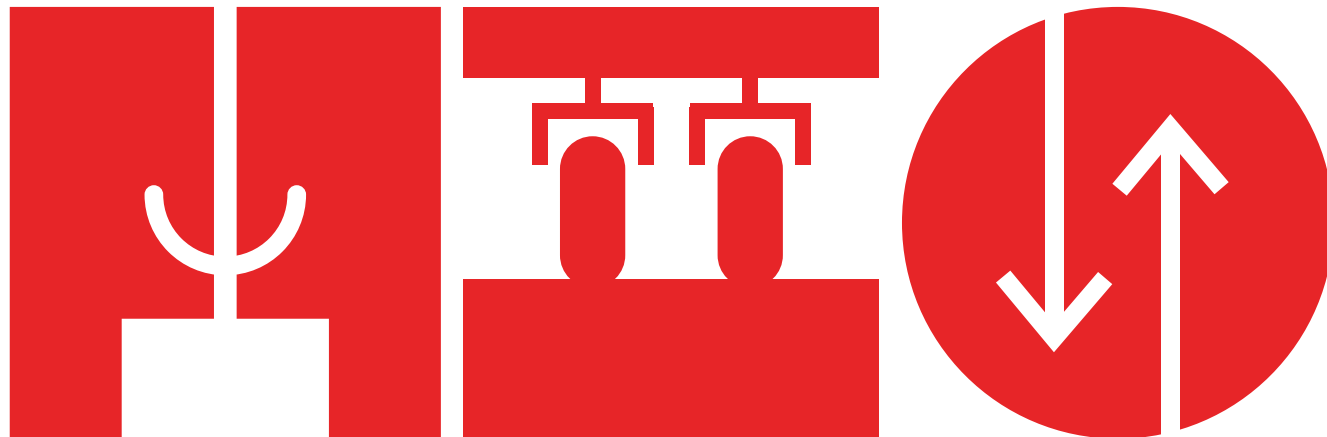


1. 소통의 근간, Our Credo

존슨앤존슨의 소통은 'Our Credo'를 근간으로 한다. 창업자인 로버트 우드 존슨이 주창한 핵심가치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환자, 의사, 간호사와 아버지와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와 같이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책임을 갖는다. 우리는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는 지역 사회와 세계 공동체에 대해 책임을 갖는다. 우리의 마지막 책임은 우리의 주주에 대한 것이다.” 소통엔 태도가 중요한데, 존슨앤존슨은 구체적 책임과 역할을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도덕적 소통 태도를 견지해오고 있다.

2. 위기의 소통, Open It

1980년대 초반 그 유명한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이 발생했다. 누군가 존슨앤존슨의 대표 제품인 타이레놀에 독극물을 투입해 8명이 사망한 것이다. 위기의 존슨앤존슨은 사건을 덮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철저히 오픈하기로 결정했다. 제조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모든 제품을 리콜했다. TV를 통해 대대적인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등 사고 재발 방지와 소비자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듯 투명하고 진실성 있는 대처를 바탕으로 사건 6개월 만에 추락했던 시장 점유율을 정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3. 인재와 소통, Recruitment talk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인재야말로 기업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우수한 인재의 효율적 영입, 이를 위한 소통 방식으로 존슨앤존슨은 'Recruitment talk'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기업의 채용 관리자들과 구체적 채용 전략 등을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후 온라인 채용 시스템의 근간이 되었다. 이를 통해 더 체계적으로 진보한 채용 사이트에는 2배 이상의 사람들이 접속했고, 3배 이상의 이력서가 접수되었다. 결과적으로 Recruitment talk를 기반으로 더 많은 인재들과 소통하고, 외부 채용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소통엔 태도가 중요한데, 존슨앤존슨은 구체적 책임과 역할을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도덕적 소통 태도를 견지해오고 있다.

4. 리더를 만드는 소통, Leadership Challenge

존슨앤존슨의 리더십 교육은 특별하다. 'Leadership Challeng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간 관리자들을 교육하는데, 주로 직접적이며 효율적인 소통 방식인 토론을 이어간다. 고위급 임원들이 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핵심가치를 설명하고 구체적 실천 사례를 제시하는데, 개인의 자발적 참여, 관리자의 철저한 후원, 조직의 시스템적 지원 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리더 육성을 목표로 한다. 리더를 만들어내는 소통, Leadership Challenge를 통해 현장에서 성과를 이루는 실질적 리더가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5. 팬데믹의 소통, IT Risk Management Team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팬데믹, 존슨앤존슨도 위기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임직원의 원활한 소통이라고 판단했으며, 신속히 IT 관리자로 구성된 'IT 위기관리팀'을 구성했다. 팀은 해결할 과제들을 점검하고 전 세계 직원들과 IT 기술을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며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는데, 그 시작은 중국이었다. 재택근무 직원들과 소통을 위해 클라우드 용량을 확대하고 네트워크 탄력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의 소통 시스템을 개선해 직원들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유통센터 및 공급망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㉞



유연하게, 책임감 있게

유연한 멘티 노윤영 과장과 책임감 강한 멘토 이현준 팀장의 다르고도 같은 생각들.

Mento

이현준 팀장
원익홀딩스 기술연구소 연구 1팀

Menti

노윤영 과장
원익홀딩스 기술연구소 연구 1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멘티 노윤영 과장(이하 노) 안녕하세요. 멘티, 노윤영 과장입니다. 2017년 원익그룹 공채 3기로 입사했어요. 원익홀딩스의 유일한 박사 학위 소유자로 기술연구소 연구 1팀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멘토 이현준 팀장(이하 이) 반갑습니다. 멘토, 이현준 팀장입니다. 2007년에 입사해서 아토, 원익아이피에스를 거쳐 원익홀딩스에 왔어요. 노윤영 과장과 업무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멘티, 멘토가 되었네요.





이현준 팀장

기술을 가르쳐주는 멘토가 아닌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획의 장을 마련해주는 멘토가 되고 싶어요.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어 주는 거지요. 앞으로도 기획의 장을 많이 만들어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노윤영 과장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업무든, 개인이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멘티가 되겠습니다. 유연한 자세를 잃지 않고 후배들에게는 좋은 멘토가 되고 선배들에게는 사랑받는 멘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노 보통 공채 박사들은 원익아이피에스에 배정받는데, 저는 원익홀딩스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면담을 신청했고, 그때 팀장님을 처음 뵈게 되었죠. 팀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 무척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구나 싶었어요. 그때 해주신 친절한 조언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노윤영 과장은 사려 깊고 진중해 보였습니다. 거기에 박사 학위까지 소지했다고 하니 탐이 나더군요. 원익홀딩스의 비전과 그동안 과소평가되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주었죠. 물론 함께하고 싶다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업무에 있어 꼭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노 스마트하게 일하는 것 아닐까요?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 효율을 높이는 거죠.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워라벨 또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때 실현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윤영 과장 의견처럼 업무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이를 위해선 책임감이 필요하죠. 저희의 경우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논리가 명확해야 하며, 투철한 책임감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들이 많아요. 각자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을까요.

최근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노 아무래도 소통인 것 같아요. 윗분들이나 다른 팀, 거래처와의 원활한 소통이 쉽지 않네요.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시지만 다른 업무를 진행하는 팀과의 소통

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서로 원하는 부분이 달라서 일까요?

이 공감합니다. 특히 다른 팀과의 소통은 쉽지 않아요. 어쩌면 물과 기름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지 않습니다. 이를 섞기 위해서는 제3의 물질을 넣어야 해요. 제3의 물질 역할을 멘토, 팀장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멘토란 멘티를 이끄는 것은 물론 때로는 가고 역할도 해야 하지요.

자신만의 직장 생활 비결이 있다면?

노 ‘Flexible’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저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사, 동료, 후배들과의 관계는 물론, 예상 외의 상황에서도 유연한 사고와 태도가 필요하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각자 개성이 뚜렷하거든요.

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소소한 성공을 지속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너무 커다란 목표를 세우고 성공 여부에 집착하다 보면 어느새 열정의 불꽃은 사그라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개발 업무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답니다. 소소한 성공을 지속하다 보면 동기부여도 되고 좀 더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즐겁지 않으면 빨리 지치더라고요.

현재 노윤영 과장님은 근로자위원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노 팀장님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로자위원을 한다고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회사 임직원의 의견을 전하며 부딪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위원은 노조 역할을 대신해주는 직원입니다. 제가 원익아이피에스에 있을 때 처음 진행을 했어요. 직원들과 관계가 좋은 노윤영 과장에게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제안했고, 현재 노윤영 과장은 근로자위원 대표를 맡아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노 팀장님이 다른 분들에게 ‘그 친구 괜찮더라, 일 잘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아직 팀장님께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의 든직한 멘토님,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이 원익홀딩스는 도화지, 노윤영 과장은 붓입니다. 노윤영 과장이 원익홀딩스라는 도화지에 스스로 그림을 그리며 선봉장이 되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기획의 장을 많이 만들어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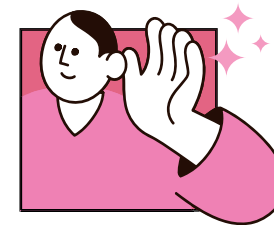
소통 지수 체크

당신은 상대와 어떤 태도로 어떠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해당 내용에 체크하자.

☐	☐	☐	☐	☐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맞춘다.	상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상대의 대화 내용에 따른 적절한 표정을 짓는다.	상대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관심을 가진다.	상대의 목소리 변화에 주의를 기울인다.
☐	☐	☐	☐	☐
상대의 비언어 메시지 (표정, 몸짓)에 집중한다.	상대의 말에 답하며 호응한다.	상대의 말을 요약, 반복, 질문하여 의사 표현을 촉진한다.	상대의 말을 지지, 인정, 격려한다.	상대가 대화 시간의 70% 이상 말하도록 만들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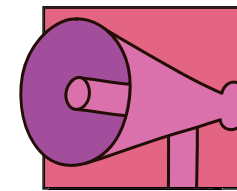
소통 가이드

나의 소통 능력은 얼마나 될까? 체크리스트 개수를 기준으로 단계별 가이드를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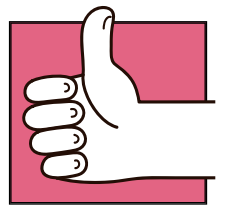
0~4개,
123법칙으로 시작하세요

아쉽지만 당신의 소통 능력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우선 '123법칙'부터 실천해보자. 상대와 소통 시 1분 동안 자신이 이야기했다면, 2분 동안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시간 동안 적어도 3번 이상 눈을 맞추자. 소통의 기본은 경청과 공감임을 기억하며, 체크리스트 중 체크하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도록 하자. 소통 능력 또한 반복과 훈련을 통해 향상되니 낙심하지 말자.



5~7개,
비언어적 요소에 신경 쓰세요

당신은 평범한 소통력을 지녔다. 일상에 별 문제는 없지만, 소통을 통해 관계를 넓히거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다. 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언은 소통의 3요소를 언급했다. 말, 목소리, 태도가 그것인데,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 때 3가지 요소가 한결같지 않으면 사람들은 말은 버리고 목소리나 태도(비언어적 요소)를 신뢰한다고 한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 목소리나 태도에도 신경을 쓰자.



8개 이상,
5:1법칙을 지속하세요

당신은 이미 소통의 달인이다. 경청할 줄 알며, 상대로 하여금 소통을 통해 신뢰를 전할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태도의 지속성이다. 심리학자 존 카트만은 '5:1법칙'을 강조했다. 소통 시 예기치 않은 1개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5가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잊지 말자, 1번 삐걱거렸다면, 5번 인정, 격려, 칭찬 등 즐거운 교감을 이어가야 한다는 걸. ㉞

DATA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인 데이터댐

5G

①

5G, IoT, 센서, 로봇 등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AI

②

데이터 축적 및 가공·결합

③

데이터 활용 및
혁신 서비스 집중에너지
절감맞춤형
자산 관리질병
진단·예측스마트
공장자율
주행차미세먼지
차감디지털
정부지능형
CCTV

데이터댐과 데이터 라벨링

디지털 뉴딜이 화두가 된 지금,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인 '데이터댐'과 일자리 사례인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 알아본다.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뉴딜이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된 범국가적 프로젝트다. 국내 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하고 비대면화를 촉진시켜 디지털 기반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혁신 가속화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뉴딜 정책은 세계 대공황 시절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해 채택한 정책이다. 대규모 공공 토목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으로서 당시의 핵심 사업장은 후버댐 건설이었다. 디지털 뉴딜은 미국의 뉴딜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유사한 점은 정책 추진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이고, 다른 점은 토목사업이 아닌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이다. 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장이 후버댐이라면,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은 '데이터댐'이다.

데이터댐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

데이터댐이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쓸모 있는 정보로 재구성한 집합 시스템을 가리킨다. 이를 활용하면 더 스마트한 AI를 개발할 수 있고, 기존의 굴뚝 산업을 혁신 산업으로 변신시킬 수도 있다.

데이터댐을 구축하려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표준화시켜야만 한다. 또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결합시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과정은 모두 사람의 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데이터댐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는 최근 정부가 내년까지 조성하기로 발표한 '국가 바이오 데이터스테이션(Data Station)'을 꼽을 수 있다. 국가 바이오 데이터스테이션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10개 부처가 R&D 사업을 통해 확보한 바이오 관련 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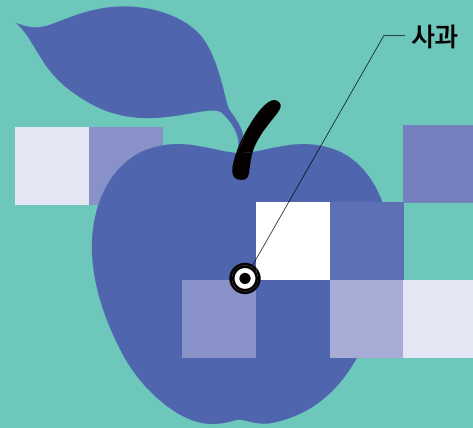
터를 한곳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댐이다.

국가 바이오 데이터스테이션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보건복지부의 임상유전체생명정보시스템, 농촌진흥청의 농생명정보센터 등 기존 부처 정보센터의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바이오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바이오산업 기반을 국산화하기 위해서다. 해외 데이터에 의존하는 현재의 연구 방식으로는 지난해 6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반도체 분야의 생산 차질 우려가 바이오 분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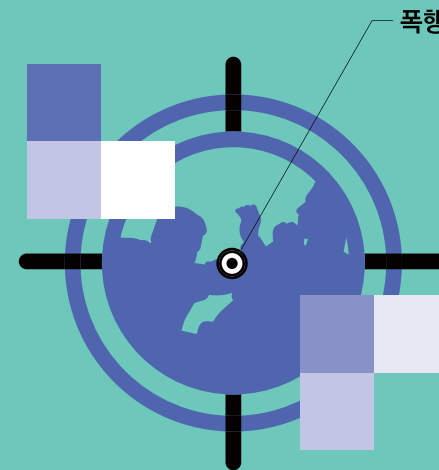
실제로 2011년 미국의 국립생물정보센터(NCBI) 같은 경우 무료로 공유하던 데이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여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바이오 분야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소재의 국산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 연구에는 데이터 활용이 필수다. 대규모 질병이 발생할 경우 치료 후보물질 같은 데이터에 신속하게 접근해야만 하므로 매년 ‘감염병 인프라 협의회’를 열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정례화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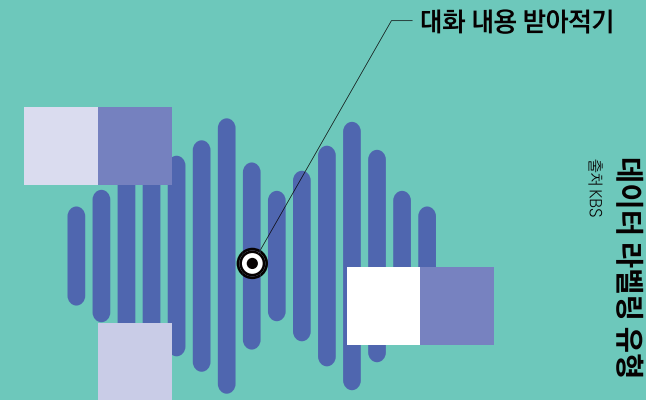
이 바이오 데이터댐이 완성되면 국내 연구진은 다양한 바이오 관련 데이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같은 신약 개발이나 진단키트 개발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양 분석 AI



스마트 CCTV AI



음성 인식 AI

디지털 뉴딜 통한 일자리 사례인 데이터 라벨링 사업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디지털 뉴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형 디지털 뉴딜의 추진 전략에는 D.N.A 생태계 강화, 사회간

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등이 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약 33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 사례로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Data Labeling)’ 사업을 들 수 있다.

데이터 라벨링이란 AI가 학습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이름표를 달아주는 사업이다. AI도 사람처럼 지식을 축적하려면 외부에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을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다. AI 학습용 데이터는 언론에 많이 소개된 빅데이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빅데이터가 유튜브나 데이터나 방문 기록 같은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라면, AI 학습용 데이터

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80%가 데이터 수집과 가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데이터 라벨링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판단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가공하는 과정이다. AI가 비행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면 다양한 비행기 사진을 AI에게 입력하고 그 특징을 학습시키면 되는데, 이때 입력하는 사진에 ‘비행기’라는 이름표를 달아주는 작업이 바로 데이터 라벨링인 것이다.

라벨링 과정에서는 정확한 대량의 데이터가 필수 요소로,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품질이 낮거나 편파적인 데이터로 학습한다면, 인공지능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다. 가령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을 가로수로 인식한다면 어떻게 될까? 혹은 특정 인종을 범죄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범죄자 얼굴 분석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로 학습된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위험하고 차별적인 요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단계인 것이다.

현재 ‘데이터댐’의 기초이자 핵심사업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클라우드 소싱 방식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부터 가공, 그리고 정제 및 품질 검증에 이르기까지 수만여 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㉞

1

대규모 데이터 뉴딜을 추진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

2

국가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자

3

디지털 역량 강화로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포용을 동시에 이루자

4

비대면의 일상화에 맞게
학교·정부를 획기적으로 혁신하자

배달의 기술

집콕 생활에 빠질 수 없는 배달 음식,
메뉴 선정부터 보관까지의 꿀팁을 정리했다.

01 메뉴, 인기 메뉴와 날씨를 고려하세요!

항상 고심되는 메뉴 선정. 많이 찾는 메뉴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근 한 업체의 배송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상과 달리 1위가 버거, 2위가 한식이라고 한다. 이는 대중의 가성비 및 가성비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니, 적당한 메뉴가 없다면 참고하도록 하자. 아울러 메뉴 선정 시 날씨 확인이 중요하다. 바라던 바와 달리 기온이 낮은 날에는 국물 음식이 식고, 습도가 높은 날에는 튀김 음식이 눅눅해지기 마련이니 주문 시 날씨부터 확인하자.

02 배달앱, 특징을 알아두세요!

배달앱마다 특징이 있다. 배달의 민족은 사용자 수가 압도적이며, 등록 음식점 또한 월등히 많아 메뉴 선택의 폭이 크다. 쿠팡이츠는 쿠팡의 배달 속도 역량을 기반으로 신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사의 직영 배달망을 활용하기에 속도가 탁월하다. 요기요는 월별, 요일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만족도를 전한다. 메뉴의 폭, 배달 속도, 혜택 등에 따라 적합한 배달앱을 사용하도록 하자.



03 리뷰, 짧은 리뷰를 눈여겨보세요!

별점이나 리뷰를 보고 메뉴와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엔 광고성 별점 및 리뷰 때문에 혼란스럽다. 경제구루 톰 피터스가 이야기했던가. 진실은 짧고 단순하다고. 리뷰를 볼 때 짧은 문장을 눈여겨보자. 실제 고객은 음식 평론가처럼 구구절절 문장을 이어가지 않는다. 이어 칭찬 일색의 리뷰 보다는 칭찬과 불평이 고루 섞인 리뷰가 신뢰할 만하다. 또한 지나치게 잘 찍힌 사진은 경계하는 것이 좋다. 리뷰를 위해 번거롭게 DSLR을 드는 고객은 많지 않을 것이다.



05 보관, 조각별로 보관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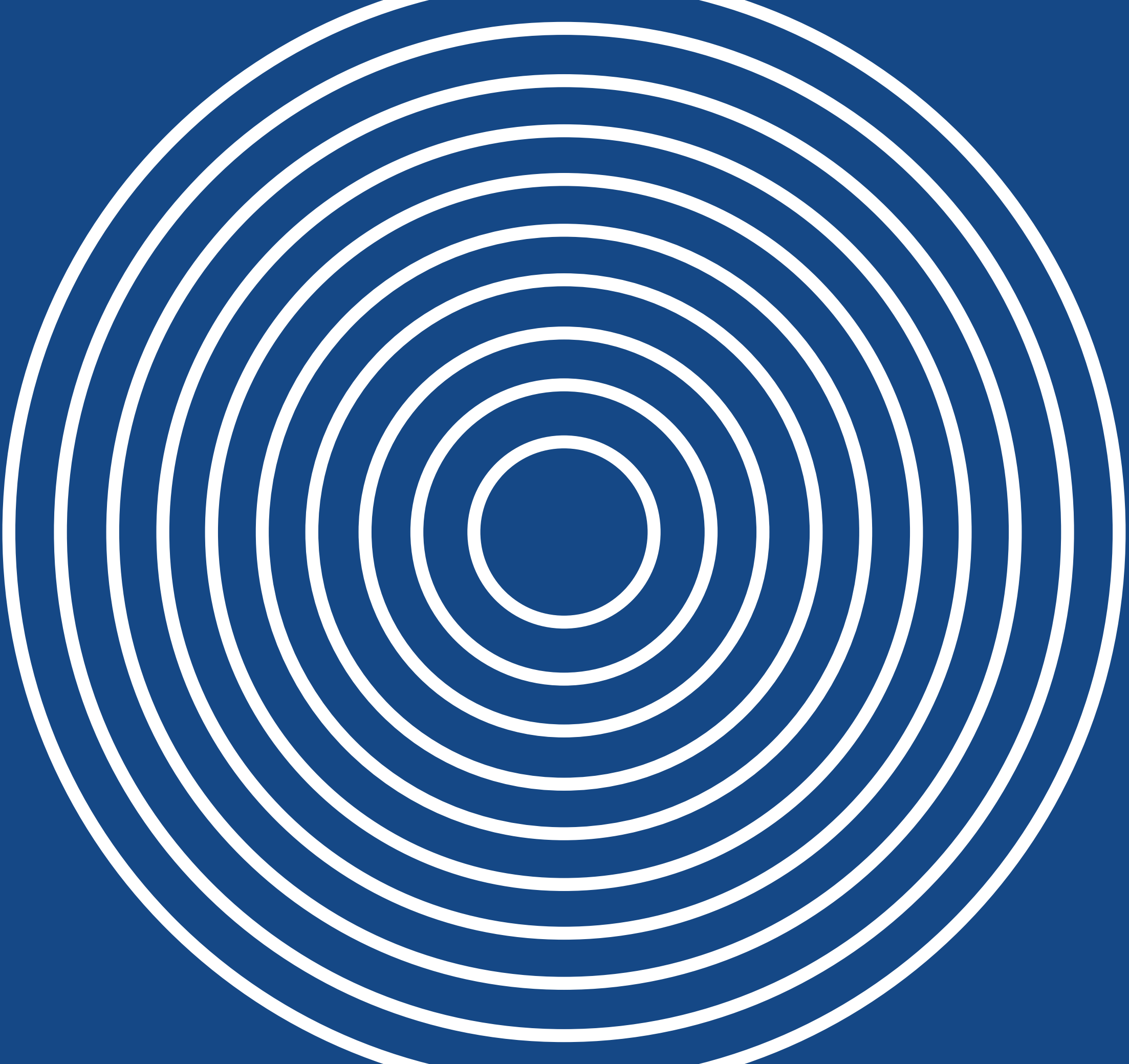
남은 배달 음식, 잘만 보관하면 근사한 한끼가 될 수 있다. 치킨의 경우 키친타월에 한 조각씩 싸서 밀폐용기에 보관하면 수분 배출을 막을 수 있다. 양념치킨의 경우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려 수분과 기름을 날린 후 보관하자. 피자는 조각별로 비닐에 개별 포장해 냉동 보관하면 추후 날개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탕수육은 일단 식히고 기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밀폐용기에 키친타월을 깔아 보관하면 좋다. ㉞



04 배달 에티켓, 도착 시간엔 집중하세요!

배달이 많아질 수록 배달 에티켓 또한 중요하다. 우선 폭설, 폭우 등의 기상 조건에선 배달을 사양하도록 하자. 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업체에 주문할 경우 결제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 카드 결제를 요청한 후 마음대로 현금 지급을 진행할 경우 거스름돈 준비 부족 등 난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음식 도착 시간엔 음악 청취나 샤워 등을 중지하고, 인터폰이 고장 났을 경우 휴대폰 소통을 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흔저서는 힘든 길이라도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원익인은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때론 힘들고,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익인은 함께의 힘을 믿고,
하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신축년 새해, 하나된 원익인의 성장과 행복의 길이 이어집니다.



ONE WAY



원익큐엔씨 [한끼줍쇼 시상식] 우리들의 ‘한끼줍SHOW’

원익인의 끼를 맘껏 즐길 수 있었던 한끼줍SHOW 시상식이
12월 23일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진행됐다.

5분의 열정

코로나19로 위축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끼발산 랜선 프로젝트 ‘한끼줍SHOW’가 진행되었다. 끼가 넘치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응모하는 방식이었는데, 상금은 총 1,000만 원 상당으로 원익큐엔씨 임직원 및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였고 방식도 간단했다. 노래, 연주, 쿡방, 먹방 등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의 5분 이내 영상을 제작해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끼부자들

한끼줍SHOW는 2020년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콘텐츠 모집을 진행했으며, 총 29개 팀이 참여했다. 그중 좋아요와 조회수를 합한 총점과 평가단 점수를 합해 본선에 진출할 10개 팀을 선별했다. 콘텐츠의 반응은 실로 뜨거웠다. 총 조회수 29,000회, 좋아요 2,700회 등 많은 이들이 콘텐츠를 즐기며 공감할 수 있었다. 12월 23일 실시간으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본선 10개 팀의 콘텐츠를 소개하며, 재능, 노력, 재미 부분으로 나누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임창빈 대표이사를 포함해 유윤재 전무, 정호경 기감 등 9명이 참여했다. 시상식 중간 유튜브를 시청 중인 임직원을 위한 깜짝 이벤트도 진행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기도 했다. 10개 팀의 콘텐츠 소개가 끝나고 마침내 최우수상 3팀, 우수상 3팀, 아차상 4팀이 선정됐다. 한끼부문(재능) 최우수상에는 자녀의 중국어 실력이 돋보인 퀴츠제조본부 유동욱 기사, 줌쇼부문(노력) 최우수상에는 뛰어난 피아노 실력을 뽐내며 시부모님에게 요리를 대접하고 재미있는 춤을 보여준 세정영업부문 김수진 대리, 끼룩부문(재미) 최우수상에는 스릴있고 조용한 먹방을 선보인 램프사업 부문 최인환 사원이 선정되었다.

자유, 소통, 행복

심사위원을 맡은 원익큐엔씨 임창빈 대표이사는 “놀라운 재능과 창의력을 보여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러한 행사들이 자유, 소통, 행복의 기업 문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며 하나되는 원익인, 2021년도 함께 성공을 이뤄갈 것이다.㉞



한끼줍SHOW
최우수상 대상자 인터뷰



한끼부문(재능) 쿼츠제조본부 유동욱 기사

작품명 : 다정이의 중국어 오디션 준비
다정이가 오케이할 때까지 3시간 이상 촬영했어요.
다정이가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 너무 좋습니다. 다정아, 사랑해!
심사위원 여러분, 좋은 점수 주셔서 고맙습니다!



줍쇼부문(노력) 세정영업부문 김수진 대리

작품명 : 용'끼'내서 도전합니다
한끼줍SHOW를 기획한 인사와 좋은 점수를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응원해주신 세정사업부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피아노를 사준 남편과 음식을 맛있게
드셔준 시부모님, 춤을 잘 춘 제 자신에게도 영광을 돌리고 싶네요!



끼룩부문(재미) 램프사업부문 최인환 사원

작품명 : 맛있는 녀석들 - 데시벨 먹방!
퇴근 후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함께 기획하고, 함께 촬영하고, 함께 활약한, 김창환
사원님과 김봉준 사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쟁반으로 때리면서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ㅋㅋ!





DISCOVERY

DEVELOP

DREAM

DESTINY

공채 7기 입문 교육 오늘부터 우린 원익인

원익의 미래를 이끌어갈 공채 7기의 온라인
입문 교육이 실시되었다.

원익인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2021년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공채 7기 입문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개인에서 조직원으로,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성장해 조직에 원활하게 'Soft Landing'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센스 있는 업무 보고, 스마트한 문서 작성, 워크스마트 습관, 3가지 신규 프로그램이 추가되었고, 원익의 역사 및 비전부터 온라인 화식까지 총 15개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번 교육의 콘셉트는 '원익인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였으며, Discovery(원익을 탐색하고 이해함으로써 조직 가치 내재화), Dream(원익인의 여정 미리 보기 통해 조직 몰입 강화), Develop(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준비, 업무 역량 강화), Destiny(원익인으로서 새출발을 다짐하며 성장 계획 수립), 4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신입사원들이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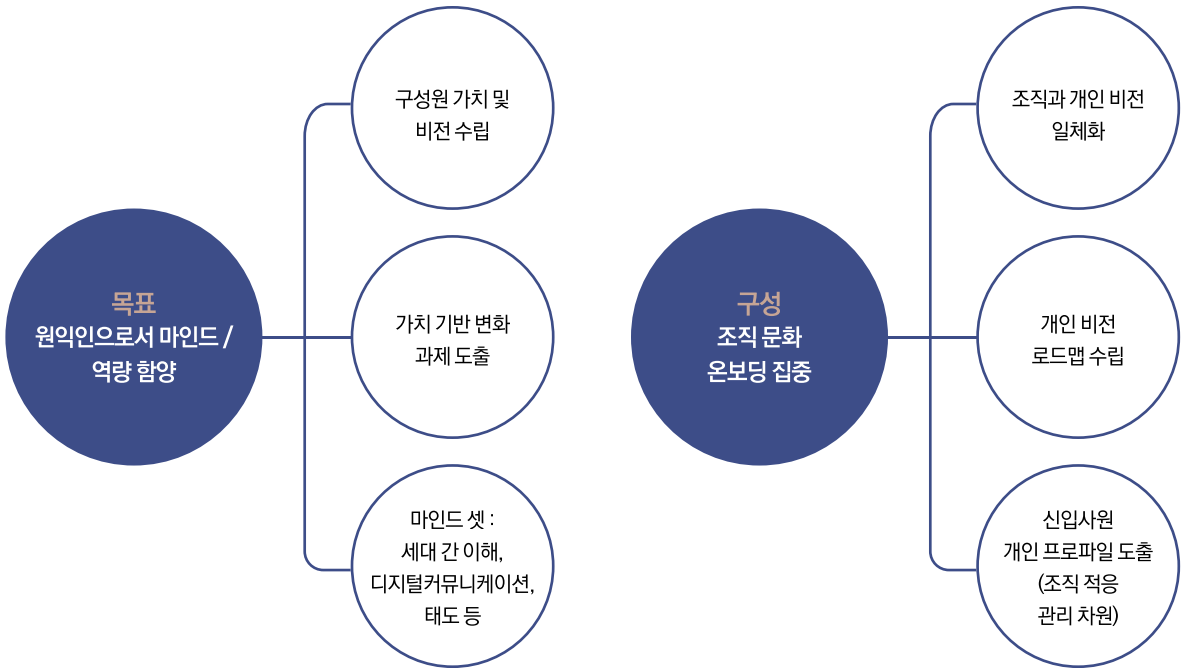
신입사원 142명, 교육 시간 41.5시간, 강사 11명

온라인으로 진행한 교육엔 신입사원 142명이 참여했고 41.5시간 동안 강사 11명이 투입되었다. 교육 첫째 날엔 신입사원들의 입사동기와 성향을 알아보고 원익의 핵심가치를 경험하였고, 둘째 날에는 원익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변화 과제를 도출하고 선배와 대화 시간을 가졌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팀 빌딩 체험도 했다. 셋째 날엔 올해 새롭게 추가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씽킹, 센스 있는 업무 보고 방법, 스마트한 문서 작성법이 이어졌고 1시간 동안의 온라인 화식도 진행되었다. 넷째 날엔 프로로 거듭나기 위한 소셜 스타일, 비즈니스 매너 및 에티튜드 교육이, 마지막 날엔 업무 관리, 독서 경영 프로그램, 셀프 리더십과 성장 계획 수립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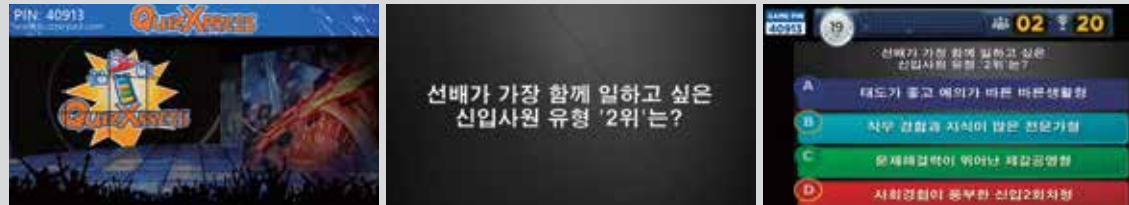
빛나는 원익인, 참 원익인

신입사원들의 원익 생활을 응원하고 격려의 시간을 갖고자 입문교육 수료 축하 및 우수자 시상식이 포함된 수료식도 진행되었다. 수료식은 오프닝, 시상식, 간담회, 클로징으로 구성되었으며 빛나는 원익인, 참 원익인 등 교육성과가 높은 원익인들을 선발하였다. 원익의 새로운 가족, 앞으로 자신의 꿈은 물론 회사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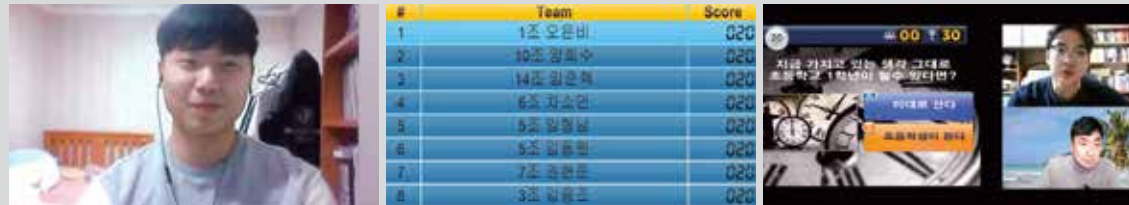
공채 7기 교육의 주요 변경 사항



공채 7기 신입사원이 만들어 갈



빛나는 원익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원익 카페에 차 마시러 오세요!

커피 복지라는 말이 있다. 임직원을 위한 따뜻한 차 한잔, 그것은 기업과 임직원의 향긋한 교감이기도 하다. 원익인을 위해 운영 중인 원익 카페를 찾았다.



커피 복지

전 세계 사람들은 1년간 약 4,000억 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상황, 커피 소비량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370잔 이상의 커피를 소비한다. 즉 모든 국민이 매일 1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는 것인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 취업포털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들은 월 평균 12만 원을 커피값으로 지출한다. 이러한 직장인들을 위해 최근 사내 라운지에 커피 머신을 비치하거나 오피스 카페를 운영하는 등 이른바 ‘커피 복지’를 제공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구글의 경우 다양한 음식을 맘껏 즐길 수 있는 사내 카페테리아가 유명하며, 아마존의 경우도 임직원에게 수준 높은 드립 커피와 차를 제공하고 있다. 굳이 카페를 찾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과 커피 한 잔이 주는 커다란 위안, 커피 복지는 자연스레 사내 분위기 및 임직원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원익 또한 임직원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시즌 메뉴와 모던한 공간

판교 원익빌딩에 위치한 ‘원익 카페’는 2018년 11월 21일 오픈했다. 임직원 복지 시설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커피, 스무디, 에이드 등 다양한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고급 머신과 스페셜티급 원두를 사용하고 있다. 아메리카노, 콜드브루, 카페라떼가 임직원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 메뉴이며, 시즌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2019년 여름 선보인 미숫가루 세이크는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다. 모던한 공간과 감미로운 음악은 힐링하거나 편안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그래서인지 많은 임직원이 외부 직원과 미팅 시 원익 카페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신입사원 면접 시 진행한 설문에서 원익 카페는 인상 깊은 시설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영일 매니저는 “앞으로도 임직원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새로운 시즌 메뉴를 통해 즐거움을 전달할 계획입니다”라며 만족스러운 서비스와 메뉴를 약속했다. ㉞



우리에게 원익카페는요?

(주)원익

Q1 원익 카페 강추 음료는?

콜드브루, 딸기스무디, 카페라떼, 바닐라라떼는 꼭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아이스 루이보스는 달달한 음료 말고 깔끔한 음료가 생각날 때 추천해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쌍화차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Q2 원익 카페 이래서 좋다?

첫 번째는 무료이고, 두 번째는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 세 번째는 고품질의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즌 메뉴도 최고입니다.(엄지 척) '생강차 연하게요', '유자차 차갑게 해주세요' 등 특별한 주문에도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익머트리얼즈

Q1 원익 카페 강추 음료는?

요거트 스무디, 얼그레이 밀크티, 밤방라떼, 자몽에이드, 홍차에이드를 추천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말할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Q2 원익 카페 이래서 좋다?

회사에서 운영하니 청결, 관리 등을 믿을 수 있어요. 아울러 임직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분위기 또한 일반 카페랑 똑같고 지속적으로 시즌에 맞춰 새로운 메뉴를 제공합니다. 원익 카페 덕분에 '내가 훌륭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구나'라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원익로보틱스

Q1 원익 카페 강추 음료는?

밤방라떼, 아포카토 등 시즌 메뉴를 추천합니다. 맛있는 얼그레이와 거품이 일품인 카페라떼, 향이 좋은 콜드브루도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네요. 커피 말고 다른 메뉴를 고민 중이라면 새콤달콤한 딸기스무디를 추천합니다.

Q2 원익 카페 이래서 좋다?

회사 내에 있다 보니 추울 때, 비가 많이 올 때 등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이용하기 정말 편해요. 음료가 빨리 나오는 것 역시 원익 카페의 장점입니다.

원익큐브

Q1 원익 카페 강추 음료는?

모든 음료가 맛있는데, 특히 카페라떼가 맛있는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죠, 원익 카페 '아이스 라떼'가 최고랍니다! 민트초코라떼도 있고요, 이 외에도 건더기가 씹히는 맛이 일품인 쌍화차, 살 찔 것 같은 팔스무디 등 맛있는 음료가 무궁무진해요!

Q2 원익 카페 이래서 좋다?

시즌 메뉴와 개인 취향까지 생각해 주시는 센스! 10점 만점에 100점 드리고 싶습니다! 추운 날 멀리 가지 않아도 되며 없는 메뉴도 만들어주시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19에도 안전함을 믿을 수 있는 원익 카페, 다양한 메뉴를 골라 마시는 재미가 있는 원익 카페입니다!

원익홀딩스 신규 사옥 준공

더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 원익홀딩스가 신규 사옥을 준공했다.

소통과 복지, 업무 효율성을 위한 신규 사옥

12월 22일 원익홀딩스의 신규 사옥이 완공되었다. 원익홀딩스는 생산량 및 인력 증가에 따라 지제사업장을 주축으로 임대사업장을 운영했는데, 직원들의 원활한 소통, 복지 시설 조성,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신규 사옥을 건축하게 된 것이다. 신규 사옥은 대지면적 16,528㎡, 건물면적 22,011㎡

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었다. 약 1년 3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했으며,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 2층은 접견실 및 휴게실과 공장동으로 조성했다. 3층은 사무실, 4층은 휴게실 및 구내식당으로 되어 있다. 신규 사옥에는 Gas Cabinet, VMB 등을 제작하는 생산팀과 ENC사업본부 건설 사업부, 경영지원 본부가 입주했다.

1F / 휴게실

2F

휴게실, 피트니스 센터



아름다운 외부, 행복한 내부

신규 사옥은 리듬감 있는 외관, 효율적인 동선, 복지 시설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외관은 주위 다른 공장과 차별화되는데, 일자 판넬이 아닌 루버(폭이 좁은 판을 비스듬히 일정 간격을 두고 수평으로 배열한 것)를 이용해 리듬감 있는 입면을 구성했으며, 일사량을 감소시켰다. 아울러 동선은 생산 효율을 극대화했으며, 1, 2층 클린룸(반도체 소자나 집적 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미세한 먼지까지 제거한 작업실)은 물류 동선, 작업 동선 등을 고려해 조성했다. 3층 사무실은 회의실, 통화부스, 휴게실을 따로 배치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규 사옥을 지을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복지 시설이다. 2층에는 임직원의 건강을 생각해 휴게실과 피트니스 센터를 마련했으며, 4층에는 카페테리아, 여성직원 휴게실, 구내 식당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조경공간, 옥상 정원 등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쉼터도 조성했다.



4F

야외 휴게실

3F

사무실, 미팅룸



임직원을 위한, 임직원에 의한

신규 사옥 건축 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임직원의 니즈를 파악해 최대한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휴게실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추후 상황이 나아지면 오픈할 계획이다. 신규 사옥 준공을 담당한 한 관계자는 “신규 사옥이 원래의 설계 콘셉트에 맞게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경영진의 지원이 없었다면 복지 시설이 뛰어난 사옥을 지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임직원을 위한, 임직원에 의해 만들어진 신규 사옥, 원익홀딩스의 새로운 성장을 이끄는 본거지가 될 것이다.㉔

소통,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핵심가치 ‘소통-한 방향’에 대한 원익다운 생각들.

Q1

‘한 방향’으로 삼행시를 짓는다면?

최유지 원익아이피에스

한 번 자유, 소통, 행복으로 결정된

방 향은

향 좋은 바디로션을 바르고
여름휴가를 가는 방향이다.

노윤영 원익홀딩스

한 방향으로 앞만 보지 말고

방 법을 달리하여 주변을 살피자.

향 상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보일 것이다.

김영민 원익큐브

한 번만 내

방 식을 믿고 따라와주면

향 상된 팀을 만들어 볼게요! 아자!!

박종국 원익머트리얼즈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더 나은

방 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프로들의 일터, 때로는

향긋한 봄 내음 같이 부드럽고
정겨운 우리 일터 최고예요!

이수환 원익머트리얼즈

한 사람보다 원익인 모두가

방 향을 명확히 공감한다면

향 상의 효과는 몇 배가 될 것이다.

정훈 원익큐엔씨

한 숨이 나오는 어려운 일에

방 법을 고민해 줄 팀원과 함께라면

향 상된 업무 능력으로 해결 못할 일이 없는
우리는 코팅사업팀.

Q2

소통해서 한 방향으로
이끄는 주변인은?

노윤영 원익홀딩스

소병오 과장님을 강력 추천해요. 직원들이
무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항상
경청하세요. 그런 후에는 무릎 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곤 하죠~!

김무성 원익머트리얼즈

송태호님이요, 부서원 개개인의 잠자고
있는 잠재 능력을 깨워줍니다.

송태호 원익머트리얼즈

권봉진 상무님, 의사 결정이 빠르고 열린
생각으로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들어주고
결정합니다. 유효재 부장님, 다양한
의견들을 잘 청취한 후 결정합니다.

전민광 원익큐엔씨

세정사업총괄 영업2팀 송범현 과장입니다.
코팅·세정 관련 이슈 사항이 있으면 유관
부서들이 모여 각 팀의 제안을 경청하며,
영업팀 입장에서 고객사를 설득할 수 있는
제안을 선별하고 조율을 원활히 합니다.

김민석 원익큐엔씨

저희 팀장이신 정훈 부장입니다. 실적이
좋은 달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며,
실적이 좋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자는 말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줍니다.

Q3

하나되어 만들고 싶은
원익의 미래상은?

최유지 원익아이피에스

Wonik Worldwide Corp. Which is
located in Boston, California USA and
Italy, Germany and more.

박범기 원익머트리얼즈

2030세대가 뽑은 우리나라 대표기업
BEST 7~ 원익!

박종국 원익머트리얼즈

정체되지 않고 꿈을 가진 회사.

송태호 원익머트리얼즈

세계에서 No.1인 제품들이 넘쳐나고,
기술력이 좋고, 복지가 좋고, 연봉도
좋고, 누구나 입사하고 싶고,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회사입니다.

정훈 원익큐엔씨

직급, 직책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가능한 원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병숙 원익큐엔씨

사람과 사람, 부서와 부서 간의 관계가
정말 좋은 회사, 사람이 그리워 출근하고
싶어지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

82	원익홀딩스 2021년 근로자위원 선출		89	원익큐브 HP Go Green Project Winner 선정 사내 전자도서관 운영	
82	원익큐엔씨 원익큐엔씨 세라믹스사업부 PSM 'P등급' 달성 2020 더위타파 프로젝트, '여름 안에서' 사회공헌활동 '마이구미 위드원익' 맞춤형 용접 전문 인력 양성과정 개설 나노원 합병		90	원익로보틱스 인천국제공항에 3종 로봇 서비스 론칭	
85	원익아이피에스 매출 1조 원 달성 디스플레이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90	원익투자파트너스 2020년 하반기 FUNDAY 행사 진행	
86	원익머트리얼즈 2020년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제19회 한국SCM 산업대상 수상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임직원 성금 2,600만 원 기부 '핸드 인 핸드' 캠페인 참여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비대면 행사 진행				
88	씨엠에스랩 수이스킨, 소비자와 함께 '맑은 아보밥 비누' 기부				

원익홀딩스

2021년 근로자위원 선출

2020년 12월 원익홀딩스가 ‘2021년 근로자위원 선출 선거’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속에 진행된 이번 선거는 임직원의 밀집을 방지하고, 쾌적한 선거 환경을 위해 시간별, SITE별로 구분했다. 기존 선출된 근로자 위원들이 활동할 때보다 증가된 인원과 조직을 바탕으로, 각 조직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근로자위원 인원을 확대하여 선거를 치렀다.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원칙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했으며, 각 선거구를 대표하는 인원을 뽑는 자리인 만큼 직원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선거 결과, 각 본부 및 여사원 대표 포함 총 5명의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었으며, 각 선거구를 대표하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선출된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위원이 된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를 전달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본인들을 믿고 뽑아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원익큐엔씨

원익큐엔씨 세라믹스사업부 PSM ‘P등급’ 달성

원익큐엔씨 세라믹스사업부가 2020년 정기 PSM 심사에서 P등급을 달성했다. PSM이란 Process Safety Management(공정안전관리)의 줄임말로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뜻한다. 세라믹스사업부는 2014년 소성로 1기가 추가 증설됨에 따라 PSM 대상 사업장이 되었다. 2016년 최초 PSM 이행상태 평가 시 M+등급을 받았으며, 2020년 정기 평가에서 P등급을 받았다.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점 이상이 가장 높은 등급인 P등급에 해당하며, 전국 PSM 사업장에서 5% 정도만이 P등급을 받을 수 있다. 4년 만에 P등급이라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던 원동력은 PSM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이었다.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방문하여 임직원 및 관계자 면담, 서류 확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 실적 인사평가 주요 항목 반영, PSM 핸드북 배포, 제안제도 운영(아차사고, 공모전, 포상) 등 안전한 사업장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인정받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다만, 구성원의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해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으나, 비상조치계획, 위험성 평가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원익큐엔씨 안전환경팀은 세라믹스사업부 PSM 평가 결과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퀵츠사업부와 세정사업부에도 횡전개하여 전 사업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PSM 시스템이 구축, 운영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2020 더위타파 프로젝트, ‘여름 안에서’

원익큐엔씨는 2020년 8월 코로나19와 무더위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여름 안에서’ 이벤트를 실시했다. 3일 동안 점심시간에 구미 A, H, C 3개의 캠퍼스에서 번갈아 진행했으며, 대표이사 및 임원들과 기업문화 TF ‘Culture-Lab(CL)’ 멤버들이 직접 생과일 주스와 아이스크림 와플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아이스크림 와플은 딸기와 바닐라, 생과일 주스는 수박, 키위, 망고 맛으로 다양하게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자 맡은 메뉴를 홍보하며 경쟁 아닌 경쟁이 벌어지기도 하여 웃음을 자아냈다. 임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선 모습에 신입사원들은 쭉뚱뚱뚱하면서도 기쁜 표정으로 간식을 받았다. 작은 이벤트지만소한 활력이 되었고, 회사가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다는 반응이었다. 참여한 임원들과 CL 멤버들 또한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우려도 컸지만 지역 내 확진자가 거의 없는 시기에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하며 철저히 예방 지침을 준수하였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원익큐엔씨는 매년 시행해왔던 행사들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지침을 준수하면서 혹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마이구미 위드원익’

2020년 10월, 원익큐엔씨 사회봉사단 ‘원익나눔회’와 기업문화 TF ‘Culture-Lab’을 주축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예방키트 제작, 1사1하천 사랑운동, 회사 주변 환경미화 활동을 3개 팀으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예방키트는 원익큐엔씨에서 KF94 덴탈마스크와 손 소독제, 소독티슈 등을 구매하고 직원들이 직접 상자에 포장하여 적십자를 통해 재난취약계층에 기부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시점인 2020년 1월 20일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120세트를 제작하여 나눴다. 두 번째로 1사1하천 사랑운동은 구미시에서 기업(단체)별 하천관리구역을 지정하여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연초 신청하여 C캠퍼스 인근 ‘한천’ 일부 구역을 담당했다. 이날 처음으로 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하천 주변을 청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회사 주변 환경미화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활동이다. A캠퍼스와 H캠퍼스 사이, 그리고 다수의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A캠퍼스 맞은편 등산로 입구 주차구역까지 꽤 넓은 영역에 걸쳐 활동이 진행되었다. 사회 공헌활동에는 총 53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임창빈 대표이사 또한 회사 주변 환경미화에 동참하여 힘을 보탰다. 이전처럼 대면 활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원익큐엔씨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원익큐엔씨

맞춤형 용접 전문 인력 양성과정 개설

나노원 합병

원익큐엔씨는 퀴츠 용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이하 포항 폴리텍)와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2020년 4월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포항 폴리텍 부리기술융합센터 내 국내 첫 퀴츠 용접 전용 실습장을 구축했다. 산업설비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회사 설명회를 개최하여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수진 서류심사와 원익큐엔씨 담당자 면접을 통해 선발했다. 이와 동시에 교육 커리큘럼 준비, 실습장 점검, 교수진 현장 연수 등 원활한 교육을 준비했다.

이후 실습장이 완공된 10월부터 12명의 교육생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원익큐엔씨 내부에서도 매우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실무자가 주 1회 포항을 방문하여 교육하였으며, 방문 교육이 없는 날에는 학교 측에서 반도체 관련 이론 교육과 개별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생 모두가 적극적인 태도와 열정으로 교육에 임하여 중도 포기자 1명을 제외한 11명 모두 올해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지난해의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보다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본 과정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용접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우수 인력을 적극 채용할 계획이다.



2021년 1월 29일 원익큐엔씨가 자회사인 나노원과 완전한 한 가족이 되었다. 2018년 3월 인수 이후 독립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오던 두 회사는 2019년부터 부분적으로 통합을 진행해왔고 조직 간 시너지 확보를 위해 2020년 11월 완전한 합병을 결정했다.

이번 합병을 통해 비즈니스 측면에서 세정 사업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회사별 보유하고 있는 핵심 역량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조직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두 조직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중복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조직 운영에서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원익큐엔씨의 앞날을 기대해본다.

원익아이피에스

매출 1조 원 달성

디스플레이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원익아이피에스가 2020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작년 한 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큰 혼란을 겪고, 당사 임직원 역시 많은 제약과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며 달성한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이처럼 원익아이피에스는 수 년간 임직원이 쌓아온 노력, 그리고 회사의 역량이 결집된 가운데 반도체 산업 호황을 맞이하여 빛을 발하게 되었다.

이현덕 대표이사는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작년 최대 매출 달성이 “수년간 추구해 왔던 Global No.1의 커다란 디딤돌로써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2021년 역시 반도체 시장 중에서도 Memory 시장의 지속 성장, Foundry 업체들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디스플레이 시장도 5G 스마트폰의 확대 및 TV 수요 증가 등 긍정적인 시장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원익아이피에스 임직원이 또 다시 힘차게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Global No.1 반도체·디스플레이 Platform Creator라는 중장기 비전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20년 10월 5일 원익아이피에스 최형섭 전무가 디스플레이의 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당사 임직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 더욱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다. 최형섭 전무는 세계 최초로 카메라 홀(hole) 디스플레이 형성 장비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여,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최형섭 전무는 그동안 플라스마 화학기상 증착기(PECVD), 건식 식각기(Dry Etcher) 등의 국산화를 추진해 원익아이피에스 매출과 수출 확대에 공헌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국내외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원익아이피에스 디스플레이 사업의 미래가 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익머트리얼즈

2020년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2020년 12월 21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선두기업 원익머트리얼즈가 ‘2020년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직원복지제도와 근로 환경으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원익머트리얼즈는 건전한 노사 문화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도 노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원익머트리얼즈는 생산 공장 신설 및 증설을 위한 과감한 신규 투자를 통해 최근 3년간 약 200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연장 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했다. 또한, 유연 근무제 도입, 징검다리 휴일간 공동 연차 사용 권장,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노력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제19회 한국SCM 산업대상 수상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2020년 10월 29일 원익머트리얼즈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19회 한국SCM 산업대상 시상식’에서 SCM 산업대상과 SCM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원익머트리얼즈는 SCM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SCM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정부로부터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직원 성금 2,600만 원 기부

2020년 12월 28일 원익머트리얼즈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하고,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도 성금 6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원익머트리얼즈 임직원 400여 명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으며, 평소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에 걸맞게 자발적으로 나눔에 동참했다. 원익머트리얼즈 노사협의회 오희서 근로자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2020년이였다”며 “우리 직원들의 성금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는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핸드 인 핸드’ 캠페인 참여

원익머트리얼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핸드 인 핸드(Hand in Hand)’ 캠페인에 참여했다. 핸드 인 핸드는 지명을 받은 참가자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다음 주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진행되는 소셜 릴레이 캠페인이다. 원익머트리얼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목을 받아 본 캠페인에 참여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더했고,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심택’을 지목했다.



원익머트리얼즈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비대면 행사 진행

원익머트리얼즈는 코로나19에 지친 임직원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단체 활동을 필요로 하는 기존의 행사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했다. 행사는 총 3단계로 이루어졌다. 임직원은 가족과 함께 자동차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각 사업장에 설치된 푸드 트럭에서 따뜻한 어묵과 다양한 음료를 즐겼다. 또 전국 각지의 유명한 디저트를 현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배달해주었다. 원익머트리얼즈는 2020년 기업 문화 증진 및 임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행사를 매월 1, 2건씩 기획했으나, 코로나 제로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이처럼 색다른 방법으로 임직원과 소통했다.



씨엠에스랩

수이스킨, 소비자와 함께 ‘맑은 아보밥 비누’ 기부

클린파워뷰티 브랜드 ‘수이스킨’이 천연 유래 성분 100% 약산성 클렌징 바 ‘맑은 아보밥 비누’를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미혼모 가정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수이스킨 공식몰에서 2020년 12월 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오, 맑아! 캠페인’의 일환으로 수이스킨만의 ‘바름’의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소비자와 함께 진행했다. 이벤트 참여자가 기부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를 남기면 참여자 전원의 이름으로 미혼모 가정에 맑은 아보밥 비누를 기부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함께하는 가치 실천을 위해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참여한 소비자들의 이름으로 수이스킨이 전달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원익큐브

HP Go Green Project Winner 선정

원익큐브는 HP에서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Go Green 캠페인의 Winner로 선정되었다. 해당 캠페인은 HP가 Asia Pacific 전체 규모로 진행 중인 분기별 프로젝트로 각 고객사의 장비 가동률, 생산량, 고객만족도, 소모품 Life Span 등을 점수화 하여 고객을 Red, Yellow, Green 등급으로 분류한다. Red 고객을 대상으로 엔지니어 1인당 1개 업체를 선정, 3개월간 집중 관리를 통해 Grade up을 유도하고,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포인트가 가장 높게 오른 엔지니어를 Winner로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원익큐브에서 지난해 집중 관리한 고객사가 Asia Pacific 전체 인디고 고객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두 명의 엔지니어가 Winner를 석권했다. 이는 Asia를 비롯한 국내외 인디고 업계에서 원익큐브 서비스의 기술력과 위상을 올리는 것으로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에게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T/S팀 윤홍진 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팀원들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사내 전자도서관 운영

원익큐브는 2020년 11월부터 조직문화 활성화와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해 사내 전자도서관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국내 최대 콘텐츠가 납품되는 플랫폼을 선정하여 전 임직원이 이용 중이다. 전자도서관을 통해 경제·경영, 자기계발, 시, 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접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간 동시대출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원하는 도서를 대여할 수 있다. 전자책은 모바일,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에서 대여가 가능해 장소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편하게 독서가 가능하다. 원익큐브 담당자는 “사내 전자도서관 운영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독서가 더 가까워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이 있다. 원익큐브 임직원이 사내 전자도서관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채워가길 기대해 본다.



원익로보틱스

인천국제공항에 3종 로봇 서비스 론칭

원익로보틱스는 2020년 10월 교통약자용 카트 로봇 ‘AirPorter(에어포터)’ 론칭을 시작으로, 12월에는 5G MEC 사업의 일환으로 방역안 내로봇과 소독로봇을 인천국제공항에 선보였다. 이로써 2021년에 인천국제공항에는 원익로보틱스의 로봇이 총 14대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약자용 카트로봇 AirPorter(에어포터)는 짐 운반에 어려움을 겪는 여객의 짐을 싣고 이동하는 로봇으로, 짐 운반 뿐만 아니라 공항 내 각종 시설 안내 기능을 탑재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에게 편리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롭게 소개된 방역안내로봇 ‘SeRo(세로)’는 입국객 중 고열 증상자, 마스크 미착용자를 감지하여 알람 메시지를 내보내고, 관제센터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응대할 수 있게 한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방역안내로봇 SeRo를 통해 보다 철저한 방역을 실현하게 되었다. 아울러 SeRo는 2021년 상반기에 원익홀딩스 공장에서도 보안서비스를 시작한다.

방역안내로봇과 함께 소개된 소독로봇은 원익큐엔씨와의 협업으로 인체에 무해한 222nm UV를 사용, 공공장소의 바닥과 공기를 실시간으로 소독한다.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장소를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면서 실시간으로 소독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실내 방역이 가능하다.

서비스로봇 전문 기업인 원익로보틱스는 앞으로도 다양한 장소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로봇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원익투자파트너스

2020년 하반기 FUNDAY 행사 진행

2020년 11월 26일 원익투자파트너스는 2020년 9월 이전한 새로운 보금자리의 라운지에서 2020년 하반기 FUNDAY 행사를 진행했다. FUNDAY 행사는 상·하반기로 연간 2회 진행되고 있으며, 전 직원이 모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서로에게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다. 행사의 첫 번째 순서로, 상반기 우수사원을 선발했다. 우수사원은 전 직원의 투표로 선발되며, 약 일주일의 시간 동안 모든 투표를 완료하였다. 지난 번과 달리 이번 하반기 투표 결과는, 압도적인 우세로 총 8표를 받은 기획관리본부 최선묵 과장이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었다. 이어 다과시간이 진행되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전 임직원이 모이는 자리가 오랜만이라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회포를 풀 수 있는 시간이었다.



Thanks for U

원익인은 여러분의 열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번 호를 읽고 코멘트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께 선물을 드려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보내실 곳 사보팀 (디자인연구소 피플페이지) people_page@naver.com

보내실 때 코너제목/ 이름/ 소속/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선물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보내는 법 모든 콘텐츠 참여는 휴대폰에서 편리하게 바로 보내기 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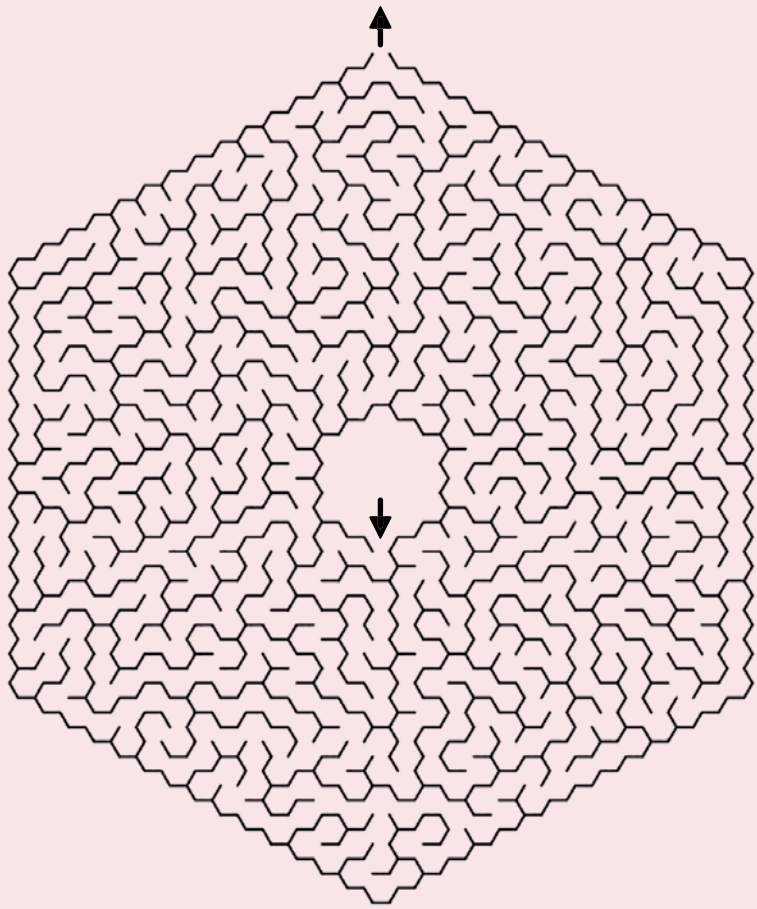
문자보내기 > 전화번호 입력창에 전화번호 대신

피플페이지 메일을 넣어주세요.

코너 추천·사연은 기한 없이 보내주세요.

미로 찾기

미로를 탈출하신 분께는 신축년 새해 복을 가득 담아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보내드려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께는 감사의 선물로 돌체 락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4월 23일까지 보내주세요.**



자료제공 Maze Generator

지난호 참여자 스타벅스 상품권 2만원권<12명>

Boss vs. Leader

최유지, 김재현(원익아이피에스)

명단공개

최운철, 홍광식(원익큐브)

그웨이팀

송한덕, 김태형, 노재현, 박수진, 백종민, 이기찬, 노종선, 박희준, 서장우, 신희준, 이유정(원익머트리얼즈)

멘토링

여주은, 권지영(원익머트리얼즈)

공감라운지

이윤두(씨엠에스랩)

미로찾기 응모자 스타벅스 기프트콘 <14명>

남희진, 김혜경, 이다영(원익큐브)

홍희정, 송태호, 박종국, 황충

(원익머트리얼즈)

임예솔, 진새라, 윤인일(원익홀딩스)

김민석, 곽솔미(원익아이피에스)

성하경, 홍성표(원익큐엔씨)



홍성표님께서
보내주신
미로찾기입니다.

컬러링 스타벅스 기프트콘 2매

곽솔미(원익아이피에스)

